

20
2004-2024



artv
2024 04+05
vol.174
성남문화재단

2024 April & May
Vol.174

ar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ART FOR TH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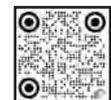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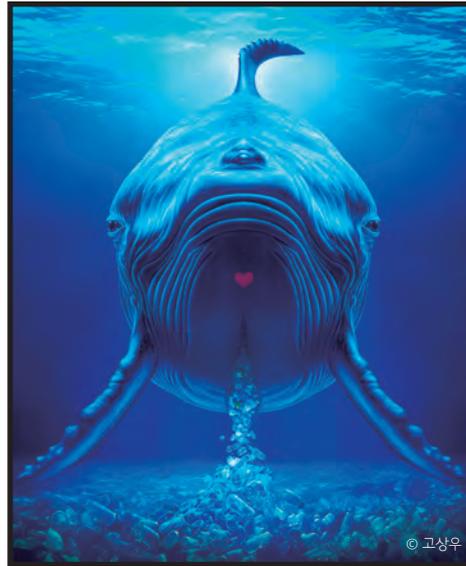


깊이보기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미리보기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칼럼 지구 없이, 음악도 없다
트렌드 굿즈 마케팅 전략

Contents

2024 04+05
Vol.174

ART FOR THE EARTH	
깊이보기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04
미리보기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10
칼럼 1 기후위기 시대, 음악계의 움직임	20
칼럼 2 해양 쓰레기의 현장을 가다	24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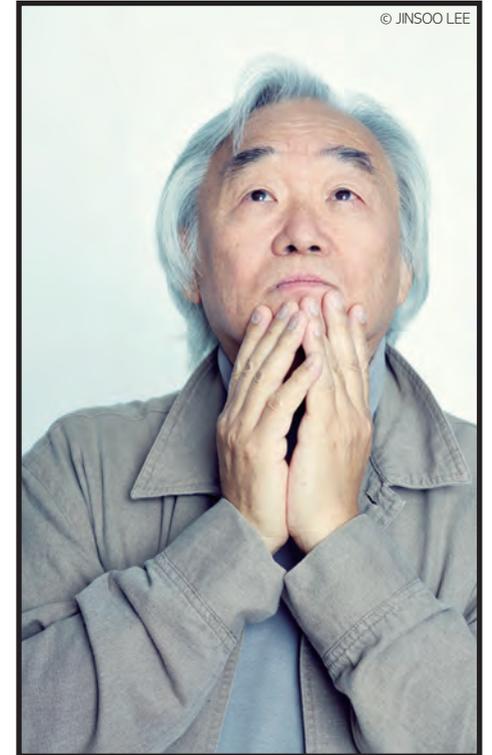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2024년 04+05월호
통권 174호(비매품) 2024년 4월 17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서정림 | 편집인 심보미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V	I	E	W
미리보기 1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8
미리보기 2 마티네 콘서트 5월			32
미리보기 3 연극만원 <컬렉티브 스토리즈> <슈만>			36
미리보기 4 뮤지컬 <슈퍼클로젯> 키즈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40
미리보기 5 2024 성남작가조명전 2 <조창환: 숨, 묵묵한>			42



C U L T U R E +	
BOOK 이 한 권의 책	46
이럴 땐 이런 앱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48
시네마 클래식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과 지휘자 번스타인	50
트렌드 오감을 충족시키는 굿즈 마케팅	54
장애인 예술 장애·비장애예술인의 경계를 지우다	60
생활 속 디자인 식사 도구의 역사	66

S E O N G N A M +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76
4+5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81
SNART NEWS 성남문화재단, ESG 경영 선포식 개최 외	86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2

ART FOR THE EARTH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예술을



찾아서

04 깊이보기_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10 미리보기_2024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20 칼럼 1_기후위기 시대, 음악계의 움직임

24 칼럼 2_해양 쓰레기의 현장을 가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글 조주연 TBS 보도본부 기자

과학재난팀, 지역뉴스팀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 일상과 연결 지어 풀어내고 있다. 공연 예술은 취미였지만, 관심을 키워 라디오 뮤지컬 코너 진행, 유튜브 문화 콘텐츠 제작 등에도 발을 담갔다. 덕업일치까진 아니고, 덕과 업의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중.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제 다 멈춘 채...”

- 그룹 샤프의 노래 '연극이 끝난 후'

그러면 여기서 문제, 무대 위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적이라고? 아니다. 탄소다.

연극이 끝난 후, 감성적인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순간을 끊고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탄소는 중하고, 기후위기는 문제고, 무대의 책임은 크다. 공연장의 탄소 배출량을 추정해 보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연장 한 곳당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541톤에 달한다.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의 정보를 수집해 추정했다. '원래 건물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곳이야. 관객인 나랑은 무관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1인당 탄소 배출량 수치도 가져왔다. 1년에 한 4번 정도 공연장을 다녀온 당신은 최대 32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축제는 그보다 많은 45kg. 축제에서 더 숨을 자주 쉬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동 거리, 이동 수단 등을 고려해 나온 수치다.

숫자들로 정신없을 때 못을 박고 시작하자면, 경험과 현장성을 중시하는 공연 예술은 기후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죽은 지구에는 예술도, 공연도 없다.

죽은 지구에 예술은 없다

공연 이후의 이면에 집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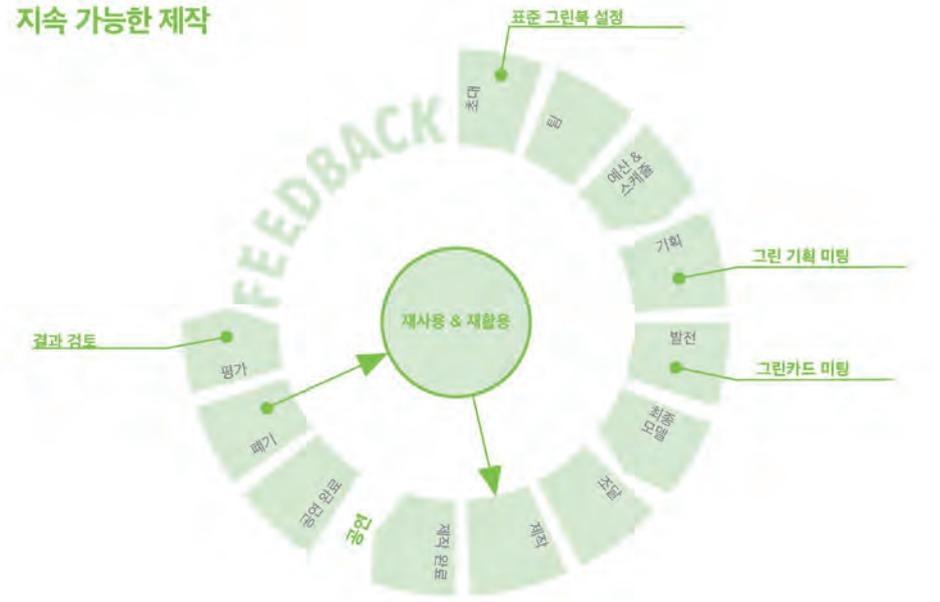
예술은 일상에서 떨어진 심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라는 쓴소리를 하기도 한다.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예술의 매력이고, 기능이다. 여기에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공연 예술은 몇 가지 특징을 더한다. 무대를 통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작품의 실체를 만들어 간다. 교감하는 순간을 위해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공간까지 이동하고, 교감의 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자리를 지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그 순간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도 없다. '지금, 이 순간만 즐길 수 있다'는 공연 예술의 특징은 마치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한정판 제품처럼, 무대 위 화려함과 즐거움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끌어낸다. 공연이 끝나면 버려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만든 소품,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조명을 위한 에너지, 배우와 관객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공연장의 온도와 습도,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관객들이 남긴 탄소 발자국. 모두 공연을 위한 투자지만, 이런 투자로 늘어난 것은 창작진의 보람, 관객의 만족감뿐만이 아니다. 탄소 배출이 증가했고, 이는 지구 전체를 보면 희생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체로 무대 위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순간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의 시선은 무대 전과 후 그리고 무대 뒤에까지 닿게 됐고, 여러 시선이 모이자 비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공연은 좋았는데, 이걸 좀 문 제 아닌가? 그리고 같이 피어오르는 의문. 왜 공연 예술의 이면도 주목받게 됐을까? '이건 좀 아

닌데'의 계기는 결국 현실에서 느껴지는 위기감이다. 가수 사이의 흠뻑쇼.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리며 다 같이 흠뻑 젖어 즐기는 공연이다. 매년 열리지만 2022년에는 유달리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전국이 역대급 가뭄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기에, 한 번의 공연에 300톤의 물을 쓴다는 발언은 뒤늦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늘을 수놓는 축제의 상징, 불꽃놀이와 잠깐의 화려함보다 불꽃이 사라진 이후 남는 대기 오염 물질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탁한 공기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영향이다. 기후위기와 환경을 소재로 한 연극, 친환경 축제를 고민하는 포럼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늘어났다. 평범한 일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현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점차 분명해지는 환경적 위기감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공연 예술을 예전처럼 너그럽게만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공연 예술의 가치는 변함없지만, 그 가치에 대한 공감과 지원이 지속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무대를 위한 노력

'지속 가능한 공연'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순간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마무리 지은 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 또한 지속되는 흐름 속에 존재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다. 고민은 단계별로 다르고, 새로운 시도이기에 시행착오는 당연히 따라온다.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의 목적은 '탄소 줄이기'

지속 가능한 제작



영국 공연 예술 관계자들이 협력해 발간한 지속 가능한 공연 가이드라인, 『시어터 그린북』의 일부.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확인할 수 있다
© Theatregreenbook.com

'기후위기 대응하기'와 같이 모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사안이기에 경쟁은 필요 없다.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식을 나눌 때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신입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사용 설명서, 매뉴얼, 가이드라인이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 강조하기 위해 열거해 보았다. 훌륭한 가이드로 꼽고 싶은 곳은 영국이다. 영국 공연 예술계는 발 빠르게 2010년부터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웠고, 2021년에는 영국 공연 예술 관계자들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공연 가이드라인, 『시어터 그린북 Theatre Green Book』을 발간했다. '합의된 가치와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는 현실 속에서 공동체로서 작품을 제작하는 기준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지속 가

과 실천 방안을 3권에 걸쳐 정리했다. 모든 재료의 50%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된 출처인지 확인하기, 장거리 이동 및 배송 줄이기 등은 '기초' 단계의 실천으로 제시된 것들이지만,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보면 새롭고 낮은 시도다. 그리고 그린북의 가이드를 상당히 성실하게 따르는 모범적인 탄소 중립 극장,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이 있다.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빗물 저장 탱크에 모인 빗물을 사용하고, 무대 자재 중 절반은 재활용품을 활용한다. 작품 제작뿐만 아니라 극장, 조직 운영, 홍보 방식 등 전반에 걸친 노력 덕분에 최근 2년 연속 탄소 배출 15% 감축이라는 성과를 냈다. 국내에서도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 예술 부문의 지속 가능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우

능한 공연 제작, 공연장 관리, 운영을 위한 노력 예술 부문의 지속 가능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우

지속 가능한
창제작을 위한 안내의
6가지 기본 방향

1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기 Reduce	재활용되지 않거나, 많은 자원의 소비로 발생하는 재료는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다시 사용하기 Reuse	한 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되풀이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고르고, 구하고, 비축합니다.
3	용도를 바꿔 사용하기 Repurpose	기존의 재료 중 손을 봐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활용합니다.
4	재활용하기 Recycle	비러지는(버려질) 폐기물에서 재작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탐색해 사용합니다.
5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Localise	위의 네 가지 방향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일손을 포함해 가능한 지역자원을 활용합니다.
6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논의와 실행 Collaborate	위의 다섯 가지 방향의 구체적 적용은 모든 구성원이 논의에 참여해 협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공연예술분야의 지속 가능한 창작 안내서」 중 일부

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익숙한 사례를 제시한, 친절한 안내서다. 이 안내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은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연극 <기후 비상사태: 리허설>. 기후위기에 대한 연극을 쓰기 위해 애쓰는 작가의 이야기다. 무대 위에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조명하고, 무대 뒤에서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국립극단 창고에 있는 소품을 재활용했고, 제작을 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페인팅을 하지 않았으며, 조명도 기존의 30%를 덜어 냈다. 여기에 더해 스테프가 이동에 이용한 교통수단, 연습 중 섭취한 식단 등 기획·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친환경적으로 공연을 제작하도록 이끌어 주는 ‘एको 드라마투르그’가 합류한 국내 최초의 연극이기도 하다.

무대가 끝난 후, 처리하기 애매해지는 소품을 재활용하려는 노력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국립극단의 공연 물품 무료 나눔 사업인 ‘빨간지붕 나눔장터’, 공연 후 사용하지 않는 무대 소품과 세트 등을 나누는 커뮤니티 ‘공쓰재(공연 쓰레기 재활용 플랫폼)’ 등이 그 예시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열리는 방식이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민간이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넓은 공간에서 한 번 소품을 받아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여와 위탁 형태로 사용의 순환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기에, 서울문화재단은 2023년 공연 물품 대여·위탁·거래 플랫폼인 리스테이지 서울을 시작했다. 현재 리스테이지 서울 창고에서는, 재단이 수집하고 개인이나 극단이 맡긴 3,000여 점의 공연 물품이 다시 새로운

무대에 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돌아온 축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도 흥미롭다. 친환경 축제를 선언한 춘천마임축제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었던 ‘파이어워크’를 불꽃이 아닌 LED 캔들과 알코올 램프, 야광 자갈로 대체해 꾸몄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현수막과 안 쓰는 예코백으로 굿즈를 만들고 기후위기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다.

공연이 말하는 지속 가능성

앞서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의 필요성으로 무대를 위한 지구의 희생을 들었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예술은 상상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와 논리를 이용한 소통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다. 호주의 사회 연구가인 레베카 헌틀리Rebecca Huntley는 ‘기후변화에 대해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라고 말한다.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아닌, 어린아이들이 기후 시위에서 사용한 손팻말의 문장이 더 와 닿을 수 있다. 그래프나 수치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슬픔, 분노, 희망,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엮어내는 건 예술의 영역, 상상의 힘이다. 그중에서도 공연 예술은 관객을 현실에서 뚝 떼어 와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해 기후위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룬 연극 작품들이 연이어 무대에 올랐다. 국립극단이 ‘기후위기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작가와 연출가를 모집한 이유도 있겠지만, 기후위기가 최근 주목받는 소재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인

간의 이기심으로 희생되고 있는 멸종 위기종 갈라파고스 땅거북을 소재로 한 <스고파라갈>, 기후위기로 다가온 인류 종말의 광경을 감각적으로 구성한 <당신에게 닿는 길>, 연결된 각각의 존재가 기후위기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배우, 북극곰 그리고 물고기들>은 각각의 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이야기했다. 다소 낯선 형태인 강의형 연극 <에너지-보이지 않는 언어>에서는 무대 위 배우가 ‘미미하다’ ‘깨끗하다’ 등 일상적 단어가 적힌 카드들을 가지고 관객들과 ‘기후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ESG 경영, 착한 소비 같은 용어가 아닌, 우리의 상상력을 편하게 불러내고 개인적으로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적 언어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나눴다.

기후위기 시대, 대안을 상상하는 예술

앞서 공연 제작 과정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공연 예술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관객의 이동과 극장 자체다. 배출되는 탄소량, 그 수치에만 매몰된다면 공연을 하지 않고 관객이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선부른 결론을 내리기 전, 기후위기가 지금까지처럼 주목받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직면했던 여러 문제에 대해 공연 예술이 해왔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랬듯, 공연 예술은 기후비상사태를 사람들의 눈앞으로 가져와 과학보다 직관적이고, 숫자보다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예술은 힘이 있다. 탄소는 지구를 죽게 하고, 죽은 지구에는 예술도, 공연도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함께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다.

ART FOR THE EARTH

미리보기

2024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A Sonnet For The Earth>



지구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예술

1~20mm	23. 29 x 57 x 10 mm	1.1g	강원도 강릉	Gangneung
4~5mm	24. 57 x 95 x 25 mm	3.9g	인천 강화	Incheon
4~5mm	장한나, 뉴라크 표본(스티로폼락)	0.1g	대구 북구	Daegu
2~5mm	주집된 플라스틱	45.4g	경상북도 영천	Yongcheon
2~3mm	45.5x53cm, 2020	2.6g	인천 강화	Incheon
1.5mm		1.5g	서울 관악	How River
3~4mm		2.1g	대구 북구	Daegu
5~7mm		3.8g	경상북도 영천	Yongcheon
1~2mm		1.7g	인천 강화	Incheon
2~3mm		3.7g	인천 강화	Incheon
1.5~3mm		1.0g	인천 강화	Incheon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일시 | 4월 19일(금)~6월 9일(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 031-783-8142~9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현대미술로 풀어내는 성남큐브미술관의 대표 기획 전시 동시대미감전. 올해 동시대미감전은 현재 초국가적 이슈인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미술관의 역할을 고민하며 기획되었다. 4월 19일부터 6월 9일 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2024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A Sonnet For The Earth>를 통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지구를 지켜 낼 수 있는 힘, 예술

<지구를 위한 소네트>는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나는 자연과 생태, 사회의 면면을 동시대 미술의 시선에서 조망한다. 생물 다양성 보전, 플라스틱 문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재정립, 해양 오염, 급격한 산업화로 삶이 파괴된 주민들, 안정된 생태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상 감정의 소중함까지, 표현 매체와 주제는 다르지만 결국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공통적이다. 또 작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후·환경 문제를 전하는 작가 외에도, 작업 과정에서 화학 연료 기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이며 기후위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관객이 이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에는 기후변화에 대항할 수 있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존재함을 느끼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Part. 1: 위기를 일깨우는 시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기상 이변... 지구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나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시각을 살펴본다.

고상우

멸종 위기 동물의 초상화를 디지털 회화로 그려내는 고상우는 현재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작가는 코끼리, 호랑이, 표범, 북극곰, 올빼미 등 지구상의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을 전통 초상화의 방법론을 차용해 극사실적인 디지털 회화로 그려 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전작은 물론, 최근 집중하는 주제인 멸종 위기 해양 동물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는 고래와 바다거북을 담은 신작 <메아리>와 <거북선>은 이번 전시에서 최초 공개되어 해양 생태계와 멸종 위기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작가의 작품은 주조색인 파란색을 바탕으로 모든 동물이 정면을 바라보는 초상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서양 미술사에서 초상화는 특정 계층과 권력자만의 전유물이었다. 고상우는 정면성이 강조된 전통 초상화 양식을 빌려와 멸종 위기 동물에게 일종의 인격권을 부여하고, 동물 역시 인간처럼 존중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예술로 담아냈다. 그래서인지 작품 속 모든 동물의 시선은 강렬하고 당당하다. 또 모든 작품

이 파란색인 이유는 작가가 사진의 색과 음영을 반전시키는 '네거티브 기법'으로 작업하기 때문이다. 미국 유학 시절, 암실에서 사진 작업을 하던 작가는 동양인의 피부는 인화하기 전 반전으로 파랗게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백인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인종 차별과 편견, 정신적 소외를 경험한 작가에게 파란색은 치유와 위로와 희망의 색으로 다가왔고, 그런 배경으로 멸종 위기 동물 초상화 연작의 주조색이 되었다.

동물 초상화 작업을 위해, 작가는 반드시 직접 동물원을 방문해 오랜 시간 동물을 관찰하고 교감하는 단계를 거친다. 깊은 심해에 있는 해양 동물의 경우는 세계자연기금과 그린피스 등 환경 NGO 단체의 다양한 자료와 다큐멘터리, 사진 등을 연구한 후 창작에 돌입한다.

"내게 정면성은 동물과 교감하기 위한 방식이다. 동물과 눈높이를 맞출 때 비로소 동등한 시각에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시도는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에 대한 염원에서 비롯됐다."

- 고상우, 작업 노트 중

고상우, 거북선, 울트라크롬HDR프린트, 150x150, 2024

고상우, COSMOS, 울트라크롬HDR프린트, 150x150, 2021





나현, Formosa Project-P12_Collage,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Gouache, Watercolor, Stamp ink etc.,180x120cm,2022

나현, Formosa Project-T08_Collage,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Gouache, Watercolor, Stamp ink etc.,180x120cm,2022



나현

나현은 역사적 사건과 기록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가이다.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역사학·인문학·문화인류학 자료를 바탕으로 아카이브를 수집 및 분석해 구조적으로 재배치하는 프로젝트 형태의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작업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카나리아 Canary>와 전시실 벽면을 가득 채운 <포모사 프로젝트 Formosa Project>이다.

<카나리아>는 작은 나뭇배를 중심으로 배 안에 놓인 나무 조각, 머구리(잠수부)의 장비를 연상시키는 금속 조형물, ‘갈륨(gallium)’이라는 금속으로 제작된 카나리아 오브제로 구성된 복합 설치작품이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광부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일산화탄소에 민감한 새인 카나리아를 곁에 두고 자신의 안전을 지켰다고 한다. 나현은 이런 상징성을 지닌 카나리아를 인간의 손 위에서도 금방 녹아 버릴 정도로 녹는점이 낮은^{30도} 금속 ‘갈륨’으로 제작, 급속한 온난화가 진행 중인 지구의 현실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일산화탄소 대신 이를 경고하는 존재로 재탄생시켰다. 작가의 카나리아는 전시 기간 동안 기온 상승에 따라 정직하게 자신을 녹여 내리며 관객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무언의 경고를 보낼 것이다.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을 지닌 ‘포모사 Formosa’는 포르투갈인들이 16세기부터 타이완을 지칭하던 이름이다. 바다와 접한 대만 동남부 산지에는 타로막 Taromak과 파이완 Paiwan이라 불리

는 고산족 원주민들이 거주하는데, 13점의 대형 식물 압화 작업 <포모사 프로젝트>는 자연과의 균형을 지향했던 이들 원주민의 삶의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작업이다. 나현은 부족 간 경계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주민들의 삶에 깊게 관여하는 식물들의 존재에 주목하고, 채집을 통해 그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고자 했다. 프로젝트의 기저에는 현재 인류가 망각하고 있

는 자연에 대한 ‘공존·균형’, 금기에 대한 메시지 역시 담겨 있다.

장한나

장한나는 암석화된 플라스틱 쓰레기 ‘뉴 락 New Rock’을 연구한다. 작가가 직접 붙인 이름인 ‘뉴 락’은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지열과 햇빛에 녹아 돌에 붙거나, 바람과 파도에 깎여 탄생한 새



© 장한나

로운 형상의 돌을 일컫는다. 조소를 전공한 작가의 예리한 시선에 포착된 '뉴 락'은 자연의 불청객에서 생태예술의 소재로 변신하며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다. 해변 곳곳에서 발견되는 '뉴 락'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생명체의 흔적은 기이하면서도 새로운 생태계가 되었고, 그 일부가 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의 형상은 지구와 자연의 또 다른 공존을 보여준다.

장한나는 2017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뉴 락'을 직접 수집, 연구하며 전시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직접 채집한 '뉴 락 표본'을 포함해, 뉴 락 안에 조성된 새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영상 작업을 소개한다. 특히 전시 공간 벽면의 시트지 월텍스트 시공 대신 작가가 직접 손으로 쓴 연구 노트 및 작품 해설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 줄 예정이다.

권승찬

권승찬은 다양한 주제로 작품 활동을 진행하는 설치미술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해양 오염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룬 신작 프로젝트 <인류세 부유하는 무감각>을 선보인다. 작가는 쓰임 다하고 버려진 다양한 폐기물을 수집해 하나의 정크 아트(junk art)로 재탄생시켰다. 작가는 자신의 고향인 어촌 항구와 해안가에서 직접 수집한 폐그물과 부표, 버려진 비닐 등을 작품의 주 재료로 사용하며 해양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말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실 천장에 설치되는 대형 설치작품 외에 신작에 대한 설계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드로잉과 영상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유지수

유지수는 과거 국가 주도 압축 성장 및 산업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해병'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담고, 파괴된 해양 및 토양 환경을 보여 주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영상 작업을 선보인다.

“자연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모두를 받아들여요. 플라스틱까지. 그래서 동식물이 ‘뉴 락’에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어쩌면 플라스틱이 많아지고 ‘뉴 락’이 생기면서 위협해지는 건 환경이 아닌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 장한나



뉴 락 설치전경

© 장한나



김미형 | 공룡항기독한 과수원 29 7x21cm
종이 위에 구멍 난 일과 드로잉, 2023

Part. 2: 자연 속에 예술을 담다

김미형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다.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의 유지, 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희로애락과 심리적인 안정은 모두 자연에서 온다. 생물종의 다양성 속에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호받을 때 비로소 인간의 영속성도 지켜질 수 있다. 건강한 생태계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행복, 슬픔의 감정과 자연에 대한 경외를 김미형·오다교의 작업으로 만나 본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김미형은 자연에서 채집한 구멍 난 나뭇잎과 콩잎을 통해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전한다. 과거 근사한 작업실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비좁은 작업실에서 시작된 나뭇잎 드로잉 시리즈는 그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어느 생명체에게 앞의 일부를 내어 준 채 생명을 이어 가는 '구멍 난 앞은 이타적인 삶을 상징한다. 구멍 나지 않

은 멀쩡한 앞은 작가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다. 작가는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생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자연의 생존 전략에 경의를 표하며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뭇잎 드로잉> 시리즈와 제주로 이주한 뒤 시작한 <넝쿨 드로잉> 연작을 함께 선보인다.

민한다. 아교를 녹인 물에 흙과 안료를 섞어 진흙처럼 만들어 장지에 부착하는 식으로 엮기도 하고, 흙과 안료가 종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죽어 가는 자연을 표현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등 신작 7점을 비롯



오다교, Walk on Water I, soil, sand, mica and pigment on canvas, 194.1x777.3cm, 2023

오다교

오다교는 캔버스 위에 흙을 물처럼 표현하며 새로운 미감을 전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파리 유학 시절 생명과 예술의 근원을 탐구하며 흙을 캔버스 위 주인공으로 삼았다. 흙이 지닌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원초적인 질감과 다채로운 자연의 색채를 사용해 숲과 나무, 바다 등 자연의 요소를 서정적인 미감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환경 친화적이다. 여기에 작품의 제작 방법 역시 지구에 누가 되지 않는 방식을 고

해 흙으로 그려진 바다를 연상시키는 <Still>, 7m가 넘는 대작 <Walk on Water I>이 함께 선보인다. 자연에서 채취한 모래와 흙으로 제작한 작품을 바라보노라면 자연의 질감이 마치 촉각처럼 다가온다. 때로는 막연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일상 속에서 일깨우는 오다교의 작품 그리고 자연의 존재에 감사하는 태도 속에서,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직도 여전히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자연에게 고마워하고 자연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오다교, 작업 노트 중

발디의 <사계>에 대입, 2050년 예상되는 사계절의 모습을 반영했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후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전 세계 도시마다 각기 다른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후위기를 음악으로 표현해 화제가 된 <사계 2050> 프로젝트를 이번 전시의 로비 공간에서 특별 섹션으로 만날 수 있다. <사계 2050> 악보와 비발디의 악보를 대조해 음표 속에 녹아 있는 기후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비발디가 사계 악보에 남긴 소네트와 시가 창작한 소네트를 전시로 선보인다. <사계 2050>의 전체 악장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 영상, 계절별 기후변화 양상이 반영된 부분을 발췌한 음원 청음 등 음악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술이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품에 담긴 환경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의 소중함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일깨우는 촉매 역할이 되어 줄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다양한 생태·사회 변화를 바라보는 동시대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일상에서 자연과 나의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ecological sensitivity)’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300년 전 비발디가 아름답게 노래한 사계절,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누린 맑은 자연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Part. 3: 음악에 담은 자연의 경고

사계 2050: 음표로 쓰인 기후변화 보고서

‘The [Uncertain] Four Seasons’ - ‘불확실한 사계’, 즉 <사계 2050>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2050년 버전의 비발디 <사계>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다. 기후변화 시나리오(RCP8.5)에 따른 2050년 기후 예측 데이터를 ChatGPT-4 모델에 학습시켜 비

글 박은경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글 **유윤종**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1996년부터 동아일보 음악전문기자로 일했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SPO> 편집장과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무국장을 지냈다. 『푸치니』, 『클래식, 비밀과 거짓말』 등의 책을 썼다. 낭만주의 음악의 완숙기로 불리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대편성 관현악과 성악 음악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음악계의 움직임

지구 없이, 음악도 없다

지난겨울 지구는 많이 아팠다. 그전의 여름도, 그전의 겨울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번역 출간된 책 『북극에서 얼어붙다』는 북극 탐사대의 보고를 통해 북극 온도가 한 세기 전보다 무려 5~10도나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준다.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정치가와 다국적 기업들만의 책임일까.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일에 음악가와 음악 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사계 2050>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 아카AKQA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2021년 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기후학자들이 예측한 세계 지역별 기후변화 데이터를 비발디의 <사계> 원곡에 적용해 시가 편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6개 대륙 14개 도시에서 공연됐다. 서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사계 2050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2021년 10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첫 버전이 연주됐다. '봄'과 '여름'에서 들리던 새소리는 새들의 서식지 파괴를 반영해 편곡된 악보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여름'과 '가을'은 폭염과 태풍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을 상징하듯 더 거칠게 표현됐다. 같은 해 11월 1일 스코틀랜드에서 개막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선 개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사계 2050> 연주가 24시간 온라인 중계됐다. 한 해 뒤인 2022년 9월에 임지영과 사계 2050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버전은 또 다른 모습이었다. 더욱 빨라진 기후변화를 반영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금관 악기와 타악기가 더해졌다. 파괴된 자연의 모습은 더 강력해진 불협화음으로 표현됐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과 손잡은 <사계 2050-대전>이 선을 보였다. KAIST 측 연구진이 인공지능 활용과 알고리즘 개발, 편곡을 맡았다. 2050년의 대전은 하루 최고 기온이 2.4도 오른 섭씨 39.5도로 높아지고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사계 2050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사계 2050> 무대

폭염 일수도 28.9일에서 47.5일로 증가하는 걸로 분석됐다. '여름'에 붙은 소네트(짧은 시)는 "무자비한 여름 태양 아래 시민과 나무들 모두 시든다. 나무들은 갈라진다. 그 지친 몸은 벌레와 말벌 떼로 고통받고, 번개와 요란한 천둥이 두려워 휴식을 찾지 못한다"로 바뀌었다. '겨울'도 빠르게 옥타브를 넘나드는 편곡으로 자주 반복되는 극심한 추위를 묘사했다.

기후위기, 음악으로 전달하기

기후변화 데이터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은 <사계 2050>이 처음은 아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일반적으로 그래프 등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낸다. 청각적 이미지 또는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미국 미네소타대 학생 다니엘 크로포드는 2013년 NASA의 지구 표면 온도 데이터를 첼로

의 세 옥타브 음역에 적용했다. 기록상 가장 추운 해인 1909년의 영하 0.47도는 첼로의 가장 낮은 C음으로 설정했다. 각각의 음표는 188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를 나타내고, 기온이 0.03도 오를수록 반음이 높아진다. 이렇게 만든 악보는 첼로곡 <온난화하는 행성의 노래>가 됐다. 실제 연주는 유튜브에서 들어 볼 수 있다. 2년 뒤 크로포드는 현악 4중주 <행성의 연결, 온난화 세계Planetary Bands, World>를 발표했다. 첼로는 적도 지역의 온도를, 비올라는 중위도 지역, 바이올린 한 대는 고위도, 다른 한 대는 북극의 기온을 나타낸다. 크로포드는 "서로 다른 기후대를 대비해서 음악을 만들면 숫자가 갖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음악은 논리와 감정을 연결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설명한다. 기후변화 위기를 호소하는 음악 작품은 이 밖에도

여럿 나와 있다. 존 루터 아담스의 관현악곡 <Be Ocean>²⁰¹³과 키어런 브런트의 <떠오르는 바다 교향곡>²⁰²⁰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경고한 작품들이다. 명상적이고 친숙한 음악 어법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이탈리아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피아노곡 <북극을 위한 비가Elegy for the Arctic>는 전 세계적으로 시선을 끌며 환경에 대한 음악의 책임을 각인했다.

에이나우디는 2016년 6월 17일 노르웨이 스텔바르 제도 부근의 북극해에 떠다니는 빙하 위에 그랜드 피아노를 설치해 이 곡을 연주했다. 800만 명의 지지를 이끌어 낸 그린피스의 북극 보호 운동을 환기한 행사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공연하는 동안 빙하에서 갈라진 큰 얼음 덩어리가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간명한 분산 화음과 후반부의 강력한 크레센도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2019년 공식 발매 앨범 <Seven Days Walking>에 삽입돼 한층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지구를 위한 음악

음악가들과 음악 산업이 기후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영국 뮤지션 브라이언 이노는 2020년 자선단체 ‘어스퍼센트 EarthPercent’를 창단했다. 그는 “전 세계 자선 단체가 모금하는 기부금의 단 3%만이 기후위기 해결에 쓰인다. 이는 충분치 않다”며 한층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어스퍼센트는 아티스트가 공동 저작권자로 ‘지구’를 등록하고 지구 몫의 수익을 어스퍼센트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정판 앨범을 제작해 기부



© Colin Mackenzie, www.orchestra-des-wandels.de
2023년 아우구스부르크 필하모닉 연주자들이 '변화의 오케스트라'와 협력해 독일 메밍겐에서 진행한 기후 콘서트 'Im Wandel #trans-formen'

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아티스트는 미공개 곡을 어스퍼센트에 제공해 예술 활동으로 기부하고, 팬들은 좋아하는 음악을 소비함으로써 기부에 동참한다. 머큐리상 후보에 세 번 오른 애나 칼비, 노르웨이 아티스트 오로라 등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Mother Earth와 함께 공동으로 음악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 어머니 없이 음악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 음악 기업들도 기후위기 해결에 나섰다.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 등 음반 업계의 주요 그룹들은 2021년 ‘음악 기후 협정 Music Climate Pact’에 서명하고 2년 뒤인 2023년에는 음악산업 기후 단체(Music Industry Climate Collective, MICC)를 공동 설립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2030년까지 음반 등 제품 제조, 유통, 라이선스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50% 이하로 줄이고 2050년에는 온실 가스 배출 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은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회사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연주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화석 연료를 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바이올리

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는 2018년 ‘변화의 오케스트라Orchestra des Wandels’와 함께 기후위기 문제를 담은 콘서트를 열어 수익금을 환경 단체에 기부했다. 그는 대륙 내 이동에서는 가능한 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열차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일정을 짰다.



미국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미국 산림 보존 단체 ‘아메리칸 포레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 화재로 황폐해진 오리건주의 숲 복원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겨울 미국 산림 보존 단체 ‘아메리칸 포레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 화재로 황폐해진 오리건주의 숲 복원 자금을 지원했다. 이 악단 측은 “악단 활동에 투여는 필수적이지만 기후에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악단이 숲 복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나무가 자라면서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투여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악단은 투어 중 화물량을 20% 줄이고 가능한 경우 기차로 운송하며 음악가들이 플라스틱 병 대신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다양한 환경 지속 노력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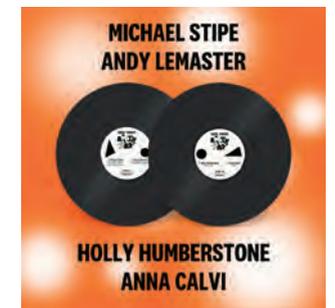
미국 오케스트라 연맹은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맹의 부회장 헤더 누난은 “지구 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을 보전하는 데 오케스트라 연맹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현악기 황에 사용되는 아마존의 페르남부코 목재의 멸종 위기를 상기시키는 ‘Know Your Bow’ 캠페인을 벌였다.

<사계 2050> 외에 우리나라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을까. 작곡가 이승규는 재활용 쓰레기로 만든 악기로 ‘업사이클 뮤직’이라는 새 장르를 열고 있다. 2022년 그는 버려진 농약 분무기로 만든 ‘유니크 첼로’와 레고 블록으로 만든 바이올린 등 업사이클(재생) 현악기를 공개했다. 그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는 모습을 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음악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업사이클 뮤직은 물질의 쓰레기뿐 아니라 마음의 쓰레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예술의 시선으로 질문한다. 이승규는 재두루미, 쇠똥구리, 북극곰 등 멸종위기 동물을 표현한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를 작곡했으며 첼리스트 4명에서 ‘유니크 첼로 콰르텟’을 구성해 업사이클 악기로 전국에서 공연하고 있다. 지난해엔 광주 계림동에 문화공간 ‘물꼬’를 열어 업사이클 악기 연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선단체 어스퍼센트는 아티스트가 공동 저작권자로 ‘지구’를 등록하고 지구 몫의 수익을 어스퍼센트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티스트는 미공개 곡을 어스퍼센트에 제공해 예술 활동으로 기부하고, 팬들은 좋아하는 음악을 소비함으로써 기부에 동참한다



글·사진 박종식 한겨레 사진부 기자
2005년부터 한겨레에서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다.
일우사진상, 한국기자상, 한국보도사진대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해양 쓰레기의 현장을 가다

지난 3월 17일, 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 보호 단체 '디프다 제주'의 활동상을 취재하기 위해 제주 비양도로 향했다. 이날 디프다 제주 회원과 자원 봉사자 등 40명이 비양도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무려 2톤. 해양 수거 활동을 마친 변수빈 디프다 제주 대표는 “꼭 보여 주고 싶은 게 있다”며 기자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플라스틱이 ‘진짜’가 되는 시대



제주 바다에서 발견한 해양 쓰레기들. 플라스틱 쓰레기와 암석이 뒤섞여 만들어진 플라스틱 암석(1), 북한산 링거액 주머니(→)

P L A S T I C R O C K

제주시 용담로에 위치한 사무실 한쪽에는 변태 표와 동료들이 2018년부터 제주 바다에서 주운 쓰레기가 가득했다. 1977년 출시된 해태 맛기차 포장지, 북한제 링거액 주머니, 중국산 영양제 통, 88올림픽 기념 팻이... 수십 년 전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었다. 그중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돌처럼 보이지만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변태 대표가 쓰레기 사이 ‘짜통 돌’을 가리켰다. 걸 보기에는 영락없는 돌이었지만, 놀랍게도 변형된 플라스틱이었다. 직접 들어 보니 가운데가 텅 빈 느낌이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오랜 시간 마모되어 만들어진 짜통 돌은 제주를 대표하는 현무암과 비슷했다.

“이건 불에 타 녹은 플라스틱이 돌에 붙어 만들어진 겁니다.” 변태 대표는 제주 현무암에 붙어 만들어진 ‘짜통 돌’을 들어 보였다. 마치 플라스틱이 돌을 삼키고 있는 모양새였다.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와 암석이 뒤섞여 만들어진 ‘플라스틱 암석’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14년 캐나다 지질학자들은 미국 하와이 남동쪽 카밀로 해변에서 플라스틱과 화산암, 모래, 조개껍데기 등이 한데 뒤엉킨 덩어리를 찾아 새로운 유형의 지질학적 물질이라는 의미로 ‘플라스티글로머이트(plastiglomerate)’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영국, 브라질 등지에서도 플라스틱 암석이 발견됐고 ‘파이로플라스틱(pyroplastics)’, ‘안트로포퀴나스(anthropoquinas)’ 등의 이름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플라스틱 암석이 인간 활동으

로 지구 지질이 변화하는 ‘인류세(Anthropocene)’를 상징하는 지표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 세란 인간 활동이 지구의 토양과 바다, 대기에 큰 영향을 끼쳐 새로운 지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국제지질학연합은 인류세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학계에서는 플라스틱 암석을 현대 문명의 이면을 상징하는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몇몇 전문가의 관심사였던 플라스틱 암석은 이제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제주 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2만 2,082톤으로 2019년^{1만2,308톤}보다 1만 톤 가까이 늘었고, 그중 가장 많은 것이 플라스틱이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빠르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예방과 수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계획은 1950년 200만 톤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7년 3억4800만 톤으로 늘었고 2040년에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의 어느 날, 넘쳐 나는 쓰레기로 인해 플라스틱 암석이 현무암을 잠식해 버릴 지도 모를 일이다.



2024

SEASON

성남아트센터
2024 시즌 하이라이트

SEASON 2024

파 프롬 더 노름 <블랙독>
Far From The Norm <BLKDOG>
6.22.Sat ~ 6.23.Sun | 오페라하우스

<발레 스타즈>
<Ballet Stars>
7.13.Sat | 오페라하우스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 <백조의 호수>
Xi'an Acrobatic Troupe <Swan Lake>
8.23.Fri ~ 8.25.Sun | 오페라하우스

존 엘리엇 가디너 &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4번 & 5번
Sir John Eliot Gardiner & Orchestra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Beethoven Symphony No.4, No.5>
10.9.Wed | 콘서트홀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나그네>
Baritone Matthias Goerne &
Pianist Maria João Pires
F. Schubert <Winterreise>
10.26.Sat | 콘서트홀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Universal Ballet <The Nutcracker>
11.29.Fri ~ 11.30.Sat | 오페라하우스

BRAND SERIES

2024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2024 Matinée Concert
3.21 / 4.18 / 5.16 / 6.20 / 7.18 / 8.22 / 9.19 /
10.17 / 11.21 / 12.19. Thu | 콘서트홀

2024 연극만원 시리즈 '예술가들의 이야기'
2024 SNART's Play Series
3~9월 | 앙상블시어터

문의 | 031-783-8000

SNART



미리보기 1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미리보기 2
마티네 콘서트 5월

미리보기 3
연극만원 <컬레티드 스토리즈> <슈만>

미리보기 4
뮤지컬 <슈퍼클로젯>
키즈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미리보기 5
2024 성남작가조명전 2 <조창환: 숨, 묵묵한>



SEASON 2024

SNART

P R E
V I E W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맑은 눈망을 같은 순수로 돌아오다

글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 JINSOO LEE

구도자의 여정.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생애만큼 이 말이 어울리는 연주가는 드물다. 언젠가 파리에서 그의 베토벤 소나타를 들은 한 청중이 기자에게 말했다. “아주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의 연주를 들으면 음악은 여행이고 음악가는 여행가란 말이 실감이 난다.

백건우는 전작주의자다. 한 작곡가를 붙잡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와 정성으로 음악 세계는 깊어져 갔다. 작곡가와 작품의 근본에까지 파고 들어 가려는 노력 때문에 청중은 작품이 아무리 무겁고 어렵더라도 음악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백건우의 자세는 늘 한결같다. 음악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음악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연주에 성실을 기한다.

누구나 음악 안에서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는다. 그러나 백건우의 성실하고 제의적인 태도는 ‘음악의 구도자’란 표현보다 차라리 ‘음악의 사제’를 연상시킬 때가 많다.

일찍이 독특한 향기 어린 라벨이나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데카로 이적한 후에 녹음한 바흐-부소니, 포레, 쇼팽 협주곡, 베토벤 소나타, 도이치그 라모폰 레이블을 달고 발매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간주곡, 슈베르트 작품집, 쇼팽 녹턴, 슈만 작품집,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등은 공통점을 가진다. 하나같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며 웅숭깊은 연주라는 점이다.

백건우는 말한다. “여행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더라도 계획대로 안 되죠. 하긴 계획대로만 돼도 재미없겠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심에 한 작곡가가 있을 뿐이다. 한번 사로

잡히면 모든 것을 집중하고 투입하는 그의 정신에서 다른 연주자의 연주에선 볼 수 없었던 오라 aura가 풍기게 된다.

성실하고 겸손하게 음악을 마주하다

백건우 인생 최대 프로젝트는 데카에서 발매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녹음이었다. 당시 백건우는 베토벤이란 작곡가를 고전주의자가 아닌 낭만주의자로 봤다. 고전주의 음악은 긍정에서 추던 춤곡이었다. 긍정을 떠나지 못했던 하이드과 모차르트와는 달리, 음악을 들고 거리로 나가 대중에게 전하기 시작한 혁명가 베토벤을 표현하려 했다.

2011년 브람스의 간주곡, 카프리스, 로망스를 연주한 독주 음반을 발매해 작곡가 특유의 잿빛 회한에 슬픔과 평온함을 묵직하게 투사했다. ‘음표마다 고독해야 한다’는 브람스의 말대로 그의 타건은 담담하고 향기로웠다.

베토벤과 브람스 이후 ‘순례자’ 백건우가 향한 곳은 슈베르트였다. 2013년 DG 레이블을 달고 발매된 새 음반은 <4개의 즉흥곡, D899>와 <악흥의 순간, D780 Op. 94> 2번·4번·6번, <피아노 소곡, D946> 중 1~3번을 수록했다. 백건우는 가장 슈베르트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숙고

를 거듭했고, 그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했다. 아침
하지 않는 연주, 달지 않은 해석이었다.

2019년 백건우는 쇼팽의 <녹턴>을 발표했다. 쇼
팽을 가장 가깝게 그려 보고 싶은 마음이 녹턴으
로 쏠렸다. “작은 살롱에서 친구들과 연주하며 진
실한 대화를 나누던 쇼팽의 모습을 재현하고 싶
었다”는 그는 그동안 노출됐던 쇼팽의 겉모습보
다는 내밀한 속내를 이야기했다.

백건우는 단순히 ‘예쁜 곡’이나 ‘부담 없이 듣기
좋은 곡’이라는 녹턴의 통념을 깨뜨린다. 그는 쇼
팽의 녹턴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연주하
기로 마음에 담아 두었던 숙제라고 했다. 음반으
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쯤 비로소 쇼팽이
남긴 숙제와 대화가 시작됐다.

이후 백건우의 시선이 머문 작곡가는 로베르트
슈만이다. 2020년 9월 도이치그라모폰에서 발표
한 백건우의 ‘슈만’ 앨범 각 장엔 ‘오이제비우스’
와 ‘폴로레스탄’이란 이름을 붙였다. 슈만의 분열
된 음악적 두 캐릭터로 각각 내성적이고 순수한
자아와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자아를 뜻한다. 베
토벤과 슈베르트, 브람스의 작품들로 채워졌던
백건우의 아카이브에서 슈만은 의외의 빈 챕터

였다. 백건우가 사사했던 거장 빌헬름 켐프가 위
의 세 작곡가들을 잘 연주한 명수였고, 그와 더불어
슈만 해석에 일가를 이루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례적이었다. 이에 대해 백건우는 “젊은 시절

슈만이란 작곡가가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땐 이
유를 몰랐는데 그만큼 슈만의 세계가 복잡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야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녹음을 하며 슈만의 삶과 음악이 더욱
깊게 다가왔다”고 그는 말했다. 클래식 팬들은 다
기 속에서 서서히 진하게 우러나는 차의 향처럼
백건우의 세계에 젖어 들었다.

2022년 백건우의 시선이 처음으로 스페인 작곡
가 그라나도스를 향했다. 스페인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고예스카스> 각각의 곡들은 독립적이
다. 고양의 특정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다만 ‘사랑과 죽
음’이라는 주제가 전편을 관통한다. 이 곡을 작곡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형제처럼 친했던 이
사크 알베니스¹⁸⁶⁰⁻¹⁹⁰⁹의 죽음이었다.

“슬픔과 우아함이 서로 뒤섞여 시적인 분위기 속
에서 표현되도록 노력했다. 사랑스럽고 열정적인
음이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음으로 변하는데, 이
는 고양의 그림들에서도 느껴진다”는 그라나도
스의 설명대로였다. 2023년, 그는 병마로 고생하
던 사랑하는 그의 분신 윤정희를 떠나보냈다.

인생의 산을 넘고 그려 낸 모차르트

이제 2024년, 여전히 맑은 그의 눈망울은 모차
르트의 순수를 향한다.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 모
차르트지만 지금껏 미뤄 왔던 녹음이다. 천상의,
천연의 상태를 그대로 퍼 온 것 같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인위적으로 그려 내기 힘들기 때문이었
다.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감동을 줘야 한다는 강

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감각을 갖게 되기까지, 그는 모차르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연기해 왔다.
“모차르트는 아이가 치기에는 너무 쉽고 어른이 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
나벨이 남긴 말대로다.

백건우는 5월 24일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새 음반의 수록곡인 모차르트만으로 리사이틀을 펼친
다. <환상곡, K397> <론도, K485> <피아노 소나타 2번, K280> <안단테, K616> <아다지오, K540>
<지그, K574> <환상곡, K396> <전주곡과 푸가, K394> 등 백건우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배열한
모차르트를 들을 수 있다. 7세 때부터 건반 앞에 앉았던 백건우. 이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노거장의
경륜과 통찰, 혜안으로 그리는 모차르트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관객인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간직해 온 순수를 발견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5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 031-783-8000

PRE
VIEW

마티네 콘서트 5월

체코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글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2024년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의 주제는 '보헤미아', 즉 체코 음악이다. 그중에서도 5월 공연인 '바로크를 빛낸 보헤미아 음악가들'은 체코 음악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대악기 연주의 산 증인으로 오랫동안 활약해 온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만프레도 크레머가 특별히 협연자로 합류,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과 함께 보헤미아 음악의 정수를 전한다.



하인리히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 1681년에 출판된 '8곡의 바이올린 소나타'에 실린 동판 초상화. Paul Seel 제작

보헤미아와 그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독특한 정체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356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4세가 이른바 금인 칙서 Bulla Aurea를 반포했을 때, 보헤미아 국왕은 일곱 명의 선제후 Princeps Elector에 포함되었다. 보헤미아가 슬라브 기원과 혈통에도 볼

구하고 천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독일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헤미아는 독일과 민족과 언어는 달랐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14세기부터는 룩셈부르크 가문이, 16세기부터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스리면서 더욱 독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보헤미아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렸고, 루돌프 2세 즉위 1575-1611 때에는 잠깐이지만 프라하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기도 했다. 이런 독특한 정체성은 음악에도 흔적을 남겨서, 보헤미아 음악에는 향토적인 색채와 독일 음악의 영향이 공존하며 수많은 보헤미아 출신 음악가들이 독일어권 곳곳으로 진출해서 활약했다. 호른 등 금관 악기 연주자들은 특히 명성을 떨쳐서 전 유럽의 궁정 악단에서 보헤미아 출신 연주자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보헤미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음악적 젖줄이다'라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바로크 시대, 보헤미아의 다채로운 음악

이번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바로크 시대에 보헤미아와 독일 각지에서 활동한 탁월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듣는다. 하인리히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 1644-1704는 당대 프라하와 더불어 보헤미아-모라비아 음악의 중심지였던 크로메르지시 Kroměříž를 거쳐 잘츠부르크에서 활동했다. 찰스 버니가 18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소로 꼽았던 비버는 20세기 들어 복잡한 더블 스톱핑 기법과 스크라타투라(변칙 조율) 등 모험적인 기교와 놀랍도록 다양한 표현이 주목받으면서 힘차게 부활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는 '르네상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주자들이 비버 음악에 도전하고 있다.

10성부의 앙상블 소나타 <바탈리아>는 1673년 무렵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머스킷 소총수들의 방종한 흥청거림, 행진, 전투, 부상병들의 슬픔, 노래'와 함께 묘사된 작품으로 바쿠스에게 바쳐짐'이라는 재미있는 부제와 함께 악장마다 작곡가 자신의 자세한 해설이 붙어 있다. <바탈리아>는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일종의 표제 음악으로, 비버는 여기서 활 등으로 현을 두드리거나 종이를 현에 끼워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떠들썩한 트럼펫과 북소리, 대포 소리를 흉내 낸다.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는 독주 바이올린이 드론 반주에 맞춰 화려한 독주를 들려주고 '술에 취한 병사들의 떠들썩한 모습'을 그린 중부 유럽의 다양한 민요 선율도 있다. 각각 1676년과 1683년에 출판된 <제대와 식탁을 위한 소나타>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소나타> 역시 성숙함을 넘나드는 화려한 표현을 추구했던 바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로크 예술의 이상을 보여 주는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크로메르지시 궁정에서 비버의 동료였던 필리프 야코프 리틀러Philipp Jakob Rittler, 1637~1690는 극히 최근에야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음악가다. 크로메르지시의 궁정 도서관은 17~18세기 음악의 보고로 수많은 필사본 악보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곡이 1669년 무렵에 만들어진 <로마의 조화/화음Harmonia Romana>이다. 이 곡은 악보에 작곡가 이름이 없어서 오랫동안 파벨 요세프 베이바노프스키Pavel Josef Vejvanovský, c.1639~1693나 비버의 작품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리틀러의 작품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스트라델라Alessandro Stradella나 코렐리 등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영향이 엿보이는 작품으로, 특히 매력적인 독주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협주곡의 탄생에 예감케 한다.

드레스덴을 빛낸 보석, 젤렌카

프라하에서 공부한 뒤 드레스덴 궁정에서 활동한 얀 디스마스 젤렌카Jan Dismas Zelenka, 1679~1745는 아마도 20세기 바로크 음악계 최고의 '신데렐라'가 아닐까 싶다. 18세기 초중반 드레스덴은 유럽 음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1694년에 등극한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는 드레스덴을 화려한 바로크 도시로 개조했다. 그는 폴란드 국왕이 되기 위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했는데, 그 결과 양 종파가 공존하며 중부 유럽 최고의 음악가들이 드레스덴 궁정 악단에 모여 들었



바이올리니스트 만프레도 크레머

고 가톨릭을 믿는 보헤미아 음악가들도 대거 드레스덴에 진출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음악가가 바로 얀 디스마스 젤렌카였는데, 프라하에서 공부한 그는 명인들로 가득한 작센 궁정 악단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곡가였다.

드레스덴 궁정의 악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면서 사후에 많이 잊혔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점점 더 높은 평가와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음악에 담긴 대담한 구조와 창의적인 화성, 엄격한 대위법은 친구였던 바흐와 비교할 만하다. 그의 작품은 교회 음악이 대부분이지만 소수의 기악곡도 빼놓을 수 없는데, <8개의 콘체르탄테 악기를 위한 콘체르토 G장조>는 작곡가가 카를 6세의 보헤미아 국왕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 프라하에 갔을 때 쓴 작품으로, 자필 악보 표지에 '1723년에 프라하

에서 Praga 1723'라고 직접 적었다. 놀라운 활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조르디 사발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온다

프라하 출신인 안토닌 레이헤나우에르Antonin Reichauer, c.1694~1730는 5월 마티네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동시에 바로크 음악이 마무리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보헤미아 작곡가다. 레이헤나우에르는 비버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헤미아 음악가들이 그랬듯이 프라하에서 공부한 뒤 프라하의 성당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비발디가 <사계>를 헌정한 것으로 유명한 모리친 백작을 위해서 일했다. 평생 보헤미아를 벗어나지 않았고 3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의 악보가 독일 각지에 보관된 것을 보면 널리 명성을 얻었던 것 같다. <모음곡 B장조>는 드레스덴 왕실(국립) 도서관에 보관된 곡으로, 다시 한번 18세기 프라하와 드레스덴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편성은 크지 않지만 오보에와 바순이 눈부시게 활약하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이 들려줄 5월 마티네 콘서트에는 특별한 연주자 한 명이 함께한다. 바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만프레도 크레머Manfredo Kraemer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 중인 크레머는 시대악기 및 역사주의 연주의 산증인 중 한 명이다. 그는 바로크 바이올린의 선구자였던 프란츠요제프 마이어Franzjosef Maier에게서 배운 후 1986년부터 라인하르트 괴벨이 이끄는 무

지카 안티과 쾰른Musica Antiqua Köln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고, 1990년대부터는 독주자로 활동하는 한편 윌리엄 크리스티, 마르크 민코프스키, 르네 야콥스 등 저명한 고음악 지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가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아마 조르디 사발이 아닐까 싶다.

크레머는 1990년대 초반 사발이 이끄는 르 콩세르 데 나시옹Le Concert des Nations과 에스페리옹20HespèrionXX에 합류한 이후 30여 년에 걸쳐 악장이자 리더로 활동했으며,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것도 2007년 '르 콩세르'의 단원으로서였다. 1994년에 녹음한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에서 악장을 맡았던 그가 2019년에서 2021년에 걸쳐 만들어진 사발과 '르 콩세르'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사이클에도 참여한 건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는 젊은 후배인 야코프 레만 Jakob Lehmann을 도와 부악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여러 바로크 앙상블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1996년에는 'The Rare Fruits Council'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단체를 직접 창설했다. 레어 프루츠 카운실은 덜 알려졌지만 독특한 매력이 있는 바로크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서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이번 마티네 콘서트는 그의 개성적이면서도 섬세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티네 콘서트 5월
'바로크를 빛낸 보헤미아 음악가들'
일시 | 5월 16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컬렉티드 스토리즈>



사진 제공: 극단 기일게

PRE
VIEW

연극만원 <컬렉티드 스토리즈> <슈만>

예술가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선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호평받은 명작 연극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성남아트센터의 연극만원 시리즈. 봄기운 가득한 4월과 5월에는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 두 편이 무대에 오른다. 두 여성 작가의 미묘한 관계와 감정선을 지적이고 섬세한 대사를 통해 선보이는 <컬렉티드 스토리즈>와 클래식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인 세 음악가의 일화를 아름다운 선율 속에 담아낸 <슈만>. 두 편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 복잡미묘한 예술가의 내면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만날 수 있다.

컬렉티드 스토리즈:

촉촉한 언어 속에 드러나는 작가의 시선

도널드 마굴리스 작, 박선희 연출의 <컬렉티드 스토리즈>는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언어들로 이루어진 연극이다. 등장인물이라고는 50대 작가 겸 교수 루스와 20대 작가 지망생 리사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고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루스의 아파트 거실만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컴팩트한 이야기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팽팽한 대화들은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 예술가의 열정과 윤리 사이의 모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엇갈리며 빚어내는 갈등 등 매우 민감하고도 날카로운 주제들을 흥미롭게 펼쳐 내고 있다.

저명한 단편 소설 작가인 루스를 송배하던 작가 지망생 리사는 6년간 루스의 조교로, 또 제자로 그녀의 지도를 받으며 어느덧 인정받는 신인 작가로 성장해 간다. 단편 소설집 출간 후 호평을 받은 리사는 루스의 가장 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장편 소설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고, 이에 루스는 크게 분노하고 상처받는다. 자신은 배운 대로, 예술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리사와 그런 리사를 용납할 수 없는 루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결국 두 사람은 어떤 교차점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등을 돌린다. 언뜻 보면 이 작품은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루스와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리사를 통해 각기 다

른 세대에 속한 예술가들의 입장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작가가 치밀하고 촘촘하게 쌓아 올린 언어와 대사의 결 사이로 두 인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살짝살짝 드러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대사와 장면의 반복 속에 작가가 은밀하게 숨겨 놓은 복선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두 인물의 이중성을 은근히 암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 첫 장면에서 리사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지만 루스는 자신이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 그녀의 원고를 읽은 뒤에는 “너는 내가 생각한 애가 아니구나. 너는 딱히 네 글처럼 생기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미 작가는 리사가 ‘초대 받지 않은 손님’이며 루스의 판단과는 ‘다른’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후반부로 가면 작가의 비판적인 시선은 리사의 이중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다.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루스의 사적인 이야기로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리사는 굳이 루스를 찾아와 길고 긴 변명을 늘어놓지만, 1막부터 반복되는 리사의 대사들은 그녀의 대답이, 나아가 그녀의 사고가 상대가 아닌 오로지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만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리사가 루스를 위해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모두 이기적인 선택이었을 뿐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 맥락에서 유명 작가가 된 리사가 자신을 동경해 쫓아다니는 대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애는 사실 제

애기에는 관심이 없고,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작가는 루스의 입장에 처한 리사의 입을 통해, 리사가 루스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컬렉티드 스토리즈>는 이처럼 섬세하고 치밀하게 쌓아 올린 언어의 결들 속에서 인물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은근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연 내내 관객들은 루스와 리사 두 사람의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 각자가 보여 주는 작가로서의 윤리관과 예술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르면서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연 내내 두 사람이 이어 가는 팽팽한 논쟁과 대립이 입체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배우가 만들어 내는 호흡과 긴장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임유영과 정윤경, 윤소희와 이현지가 각각 루스와 리사 역을 맡아 각자의 입장과 내면을 섬세하고도 설득력 있게 펼칠 예정이다.

슈만: 음악보다 아름다웠던 그들의 열정

연극 <슈만>은 클래식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작곡가로 손꼽히는 슈만과 브람스 그리고 그들의 뮤즈 클라라,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이 중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은 누구보다도 섬세한 정신과 뜨거운 열정을 지닌 예술가이다. 그는 스승의 딸 클라라를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지고 그 넘치는 감정을 담아낸 무수



사진 제공: PH E&M, UMI 엔터테인먼트

한 명곡을 작곡하지만, 중년 이후 정신 착란 증세로 인해 비극적이고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영원한 뮤즈인 아내 클라라 역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예술가였으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슈만과 결혼한 뒤에는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편의 작업에 영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한편, 일찍이 슈만이 그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젊은 작곡가 브람스는 스승의 아내인 클라라에게 깊은 연모의 정을 느끼게 되고, 이후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클라라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그들의 엇갈린 만남은 각자의 삶에 오랫동안 선명한 흔적을 남기고 음악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는데, 연극

<슈만>은 바로 이들의 미묘한 관계와 음악보다 더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그들의 열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다. 공연 중에 흐르는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작품에 서정을 더하며 박상민·원기준·윤서현·이일화·채시현·최현상·최성민 등 탄탄한 연기력과 서로 다른 매력력을 선보이는 7명의 배우들이 세 인물의 미묘한 감정을 입체적으로 무대 위에 그려 낸다.

연극만원 <컬렉티드 스토리즈> <슈만>*
 일시 | 4월 19일~21일, 5월 10~12일*,
 오후 7시 30분(금), 오후 2시·6시(토·일)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 031-783-8000

PRE
VIEW

뮤지컬 <슈퍼클로젯>, 키즈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마법 옷장과 사파리 탐험, 어디로 떠나 볼까?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5월 가족의 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공연을 소개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옷장에서 등장한 '슈퍼클로'와 소녀 나라가 재미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뮤지컬 <슈퍼클로젯>^{5월 11일~12일}. 도레미 탐험대장 그리고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친구들과 함께하는 키즈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5월 17일~19일}가 어린이 친구들을 기다린다.

마법의 옷장 속에서 만나는 추억

멋진 과학자를 꿈꾸는 소녀 나라. 그러나 서툰 손놀림 때문에 언제나 물건을 깨뜨리고 부수는 실수의 연속이다. 사실 원래부터 사고뭉치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일로 바빠지면서부터 실수가 많아진 것! 속상한 마음에 어서 어른이 되어 엄마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커져 가던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마법 옷장에서 '슈퍼클로'가 나타난다.

'재미'가 연료인 슈퍼클로는 나라가 '재미'를 잔뜩 모아 오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한다. 어른이 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슈퍼클로와 함께 재미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나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추억과 시간이 담긴 마법 옷장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난다. 어른이 되면 실수도 하지 않고 뭐든 자유로울 줄 알았던 나라는 슈퍼

클로와 떠난 모험 속에서 한없이 바쁘고 힘든 어른들의 입장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두들팝> <폴리팝> 등 완성도 높은 어린이 공연을 선보여 온 브러쉬씨어터 제작답게, 실력파 창작진의 손길이 돋보인다. 뮤지컬 <명동로망스> 조민형 작가와 최슬기 작곡가의 음악을 바탕으로 뮤지컬 전문 배우들의 유쾌한 연기와 군무가 펼쳐지고,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마법 옷장' 속 모험을 다양한 공간과 장면으로 무대 위에 구현한다. 나라와 엄마가 추억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에서 관객 역시 마음 한구석이 찡해질 수밖에 없다.

뮤지컬 <슈퍼클로젯>

일시 |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031-783-8000



<슈퍼클로젯>

클래식 음악, 놀면서 배우요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는 EBS 방영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캐릭터와 함께하는 키즈 클래식 공연이다. 유아 전문 진행자인 도레미 탐험대장과 떠나는 사파리 여행을 콘셉트로,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친구들이 재미있는 놀이와 함께 클래식 음악을 알려 준다.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코끼리와 병아리를 통해 지휘를 배우기도 하고, 흥학들의 무도회에서 악상 기호를 배우는 등 다양한 테마 아래 클래식의 기초 이론을 선보이는데, 성남아트센터 공연 테마는 '앵무새의 합창 대회'다. 소프라노와 베이스 등 성부와 음계 이름을 현악 4중주 연주로 함께 알아보고, 공연 관람(50분) 후 콘서트홀 로비에서 진행되는 악기 체험(20분)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더욱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키즈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5월 17일(금)~19일(일) 오전 11시(금), 오후 2시(토·일)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PRE
VIEW

2024 성남작가조명전 2 <조창환: 숨, 묵묵한>

숨결로 빛어 낸 존재의 의미

글 백해원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성남큐브미술관은 성남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중장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창작 생태계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남작가조명전을 통해 오롯이 작가 개인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달에는 그 두 번째 전시로 조창환 작가의 <숨, 묵묵한>을 선보인다.



BREATH, 2024, 130×162cm, Acrylic on canvas

조창환 작가는 지난해 성남 거주 및 활동 작가를 지원하고자 진행된 <성남의 발견>전 공모 선정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위주의 30여 작품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였다.

작가의 <BREATH> 작업은 생명을 가능케 하는 '숨'의 행위를 수십 번의 재료적 실험을 거친 끝에 확립한 결과물이다. 그는 물감을 한 가닥씩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숨'을 표현한다. 작업 초창기에는 여러 겹로 이루어진 갈대 빗자루의 가닥을 적당히 뽑아 만든 붓으로 기다란 획들을 중첩해 쌓아 올리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들숨과 날숨 하나하나를 더욱 정교하게 표현하고자, 한 가닥의 갈기 형태 특수 붓을 개발한 현재의 작업 방식을 통해 마치 숨결이

살아 있는 듯, 생동감 있는 화면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개의 캔버스를 공간에 펼쳐 놓고 돌아가며 획을 쌓아 올린다. 이는 하나의 '완성작'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복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작가의 실행 의지가 담겨 있다. 숨결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의 추상적인 형상을 만들어 내는 이 과정은 요령이 통하지 않는, 오롯이 작가의 노력과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창작 프로세스이다. 획이 서로 밀리지 않도록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중첩하는 행위는 작가에게 일종의 수행 과정이며, 사유의 결과물인 것이다. <BREATH> 시리즈에서 작가는 캔버스 전면을 숨결로 완전히 채우기도 하지만, 겹겹이 쌓인 선의 존재는 하나의 형상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 형태는 마치 연속된 씨앗처럼 보이기도 하고, 식물의 어느 이파리 같기도 하다.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자연을 모티프로 한 이 형상은 작가가 추구하는 숨에 대한 표현, 세밀한 의식을 거쳐 화면에 생동감을 불러온다. 또한 블랙 시리즈에서는 붓으로 채운 흔적 속에 남겨진, 하얀 캔버스의 미묘한 틈을 볼 수 있다. 흰 물감으로 점을 찍은 듯한 이 공간은 또 다른 살아 있음, '숨구멍'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 행위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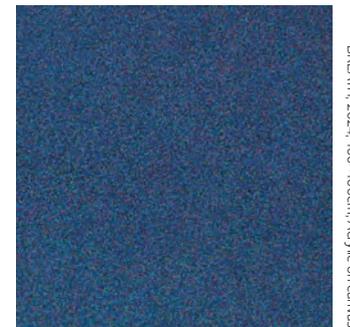
"존재의 의미는 결국 자아^自를 형성하고 이로 인한 의식이나 관념은 행위의 주체가 된다. 들고 나는 숨결이 생명체를 형성하듯이 화면에 한 올 한 올 물감이 쌓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 조창환, 작업 노트 중에서

삶에 대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가정 아래에서 시작된다. 작가가 여러 획을 찍고 또 찍으며 비가시적 존재인 '숨'을 가시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채우면서 비운다'는 조창환 작가의 삶에 대한 단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 생명체의 생성과 소멸, 살아 있음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BREATH, 2023, 130×162cm, Acrylic on canvas



BREATH, 2024, 100×100cm, Acrylic on canvas

2024 성남작가조명전 2 <조창환: 숨, 묵묵한>

일시 | 4월 26일(금)~6월 16일(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142~9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페스티벌

2024.
6.22-23
sat 7:30pm
sun 3:00pm

BLKDOG

블랙독



보티스 세바
Botis Seva
프리멘트 북
Far From The Norm



CULTURE +

BOOK

이한권의 책

이럴 땐 이런 앱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시네마 클래식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과

지휘자 번스타인

트렌드

오감을 충족시키는 굿즈 마케팅

장애인 예술

장애·비장애예술인의 경계를 지우다

생활 속 디자인

식사 도구의 역사

이 한 권의 책 지구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글 이호재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문화부에서 문학, 출판,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숄소리까지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콘텐츠라 믿는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태, 지구에 대한 작은 관심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 속 실천부터 환경 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기후위기 속 생태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회복력 시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로 유명한 미국 경제·사회 사상가의 환경서다. 효율성

만 추구하던 진보의 시대에서 벗어나 회복력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제안엔 저자의 환경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다. 저자는 생태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라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초국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태계의 경계는 인간이 설정한 경계와는 무관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적 재난은 특정 국가나 정부가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압축 성장의 길을 걸어온 한국 독자라면 특히 앞으로 우리가 회복력의 시대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리페어 컬처

환경 운동은 몸소 내가 실천하면서 하는 것 아닐까. 국립독일박물관 관장이 많은 것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독특한 건 저자가 자신의 지독한 '짠돌이' 삶을 에세이로 풀어낸다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 사는 물건이 거의 없다. 웬만하면 고쳐 쓰

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1920년대 정장 한 벌을 수선해 입는다. 50년 전 어머니가 산 믹서가 고장 나자 부품을 구해 고쳐 쓴다. 특히 저자는 정부의 정책이 오래 쓰는 제품을 우대하는 쪽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구성이 좋은 냉장고에 세금 혜택을 많이 주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튼튼한 냉장고를 사서 오래 쓰면 그만큼 버려지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제안은 한국 사회도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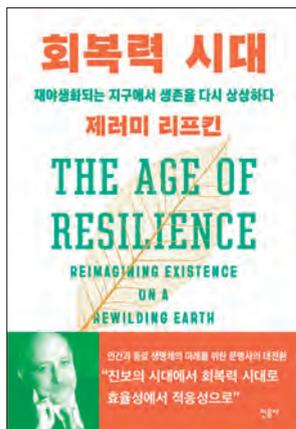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종말론은 믿을 수 있을까. 2008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환경 영웅'으로 뽑혔던 세계적인 미국 환경 운동가가 극단적 환경 운동가들의 종말론이 과장됐다고 주장한 책이다. 인간 때문에 지구에 기후변화가 벌어진 건 사실이지만, 기후변화로 지구가 끝장날 거라 단언하긴 어렵다는 것. 예를 들어 저자는 과학의 발전으로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극단

적 환경 운동가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오랜 세월 환경 운동에 몸담으며 갈수록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작정 공포에 떨기보단 함께 논의해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현재 환경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구 끝의 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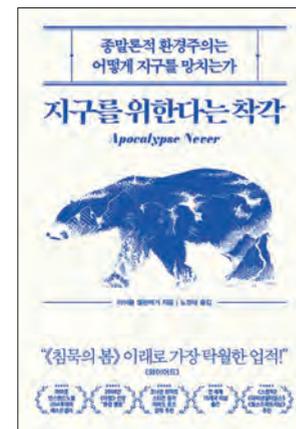
SF만큼 기후변화를 첨예하게 그리는 장르가 있을까. 단편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관내분실』로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동시에 수상한 여성 작가의 장편 소설이다. 공기 중 떠다니며 살아 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드는 물질 '더스트'가 지구를 뒤덮은 암울한 미래에 특수한 식물이 지구를 구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설을 읽다 보면 작품 속 디스토피아는 기후위기가 닥쳐올 지구의 미래처럼 느껴진다. 한편론은 코로나 사태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후재난에 처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제러미 리프킨 지음 | 안진환 옮김 | 민음사 | 432쪽 | 26,000원



볼프강 M. 헤를 지음 | 조연주 옮김 | 양철북 | 252쪽 | 15,000원



마이클 셸렌버거 지음 | 노정태 옮김 | 부키 | 664쪽 | 22,000원



김초엽 지음 | 자이언트북스 | 392쪽 | 15,000원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What's in my phone?

글 **조인혁** 클라리네티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프랑스 파리국립고등 음악원(CNSMDP)에서 수학했다. 스위스 무지크콜레지움 빈터투어와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을 역임했고, 한국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종신 수석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조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연주 활동 역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섬세한 감각과 영감으로 가득한 예술가들. 그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어떤 앱이 자리하고 있을까? 4월 마티네 콘서트 협연자인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의 최애 앱을 소개한다.

음악 감상의 파트너

유튜브(프리미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앱도 많지만, 연주자로서 실감하는 장점은 유튜브에 존재하는 방대한 클래식 영상 자료, 특히 실제 실황 공연 자료들이 아닌가 해요. 덕분에 음반과는 다른 시선으로 실황 무대를 통한 감상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죠.

다음은 베를린필 디지털 콘서트홀(Digital Concert Hall)입니다. 이 앱이야말로 음악인들의 필수 앱이 아닐까요? 베를린필의 감동적인 모든 공연들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고 그로 인한 많은 자극과 공



“What's in my phone?”



부가 함께 되는 최애 앱입니다. 공연 실황 외에도 각종 실내악과 베를린필의 역사적 스토리, 다큐멘터리 등 풍부한 아카이브로 가득해서 시간 날 때마다 시청하곤 하죠.

연주의 동반자

디지털 악보 리더 앱인 포스코어(Forscore)를 즐겨 사용해요. 각종 악보의 통합 관리는 물론, 카테고리별 분류와 정리도 편리한 앱입니다. 일정 수준의 편집도 가능하고, 앱으로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때 유용한 편의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죠. 특히 악보를 넘겨 주는 페달과 연동성이 좋아서 연주 시에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앱입니다.

문서 관리의 필수품

스캔 앱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지니어스 스캔(Genius Scan)은 문서나 악보를 스캔해서 그 이미지 파일을 보기 편하게 확대하고 기울이는 것은 물론, 명도와 채도를 자동으로 편집해 감쪽같이 깨끗한 파일로 변환해 주는 스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스캐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결과물은 물론, 사용법도 쉽고 편리한 앱이죠.

일정 관리를 한 번에

난다 긴다 하는 스케줄 앱을 제치고 제가 근 10년째 사용하는 앱은 인포먼트 5(Informant 5) 캘린더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월간 달력 안에 시간과 할 일이 동시에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일정 관리 앱을 사용하다 보면 작은 액정 때문에 시간이 표시되지 않는 점이 항상 불편했는데, 이 앱은 월간 달력 안에 시간이 함께 표시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의 특이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앱입니다.

해외 일정의 파트너

단연 구글맵(Google Maps)이죠. 해외에서 16년을 살아 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처럼 구글맵을 잘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드물어요. 구글맵은 해외에서 모든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즐겨찾기부터 숙소 검색, 맛집 찾기, 내비게이션까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는 만능 앱이죠. 제가 거주했던 뉴욕이나 파리, 바젤에는 아직도 제가 채워 놓은 구글맵의 소중한 즐겨찾기 별들이 가득하답니다.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과 지휘자 번스타인

불안했지만 위대했던 삶의 단면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비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씨네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특'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 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넷플릭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²⁰²³

감독 브래들리 쿠퍼 출연 브래들리 쿠퍼, 캐리 멀리건 외



1943년 11월 14일 일요일 아침, 25세 청년 지휘자에게 전화가 걸려 온다. 당초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할 예정이던 거장 브루노 발터가 독감으로 무대에 설 수 없으니 대타(代打)를 맡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연주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반나절 남짓. 리허설도 없이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이 청년의 활약상을 뉴욕 타임스가 대서특필하면서 '스타 탄생'의 신화가 시작된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첫 마에스트로가 된 이 청년이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이다.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Maestro)>은 인기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작곡가이자 뉴욕필의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의 실화에 바탕하고 있다. 이 영화에는 미덕이 적지 않다. 우선 분장이다. <아메리칸 스나이퍼>와 <스타 이즈 본>의 연기파 배우인 브래들리 쿠퍼는 길게는 5시간에 이르는 특수 분장을 통해서 번스타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영화 <다키스트 아워>와 <밤셀: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으로 이미 두 차례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던 일본계 특수효과 아티스트이자 조각가 가즈 히로가 이 영화의 분장을 맡았다. 두 수상작이 보여 주듯이 가즈 히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극사실주의다. 이 때문에 영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어쩌면 유대인이었던 번스타인(브래들리 쿠퍼)의 매부리코일지 모른다. 유대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번스타인의 유족들이 옹호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논란이 잦아들었다.

영화에서 쿠퍼는 주인공 번스타인 역은 물론이고 연출·제작, 공동 각본까지 '1인 4역'을 도맡았다. 당초 마틴 스코시지와 스티븐 스피버그도 연출에 관심을 보였지만 공동 제작자로 남았고 결국 쿠퍼가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스타 이즈 본> 이후 쿠퍼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장르는 다르지만 모두 음악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급하게 전화를 받은 번스타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곧바로 카네기홀에 입성하는 초반 장면부터 쿠퍼는 '초보 감독'답지 않은 화려한 연출력을 보여준다. 침실이나 식탁 같은 일상적 공간과 무대의

경계를 지우는 연출 방식은 삶과 예술이 하나이기를 원했던 번스타인과도 어울리는 설정이다. 번스타인의 곡은 물론,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흘러들던 말러 교향곡 5번의 '아다지에도'까지 번스타인이 작곡하거나 지휘했던 음악들이 넘실거린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결정적 미덕을 꼽자면 아마도 고증일 것이다. 흡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영화는 번스타인의 말과 행동, 무의식적 습관까지 스크린에 투영했다. 온몸을 뻗으면서 춤추는 듯한 특유의 '만세 동작'으로 말러의 교향곡 '부활'을 지휘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되살렸다. 실제로 번스타인은 20세기 후반 말러 재조명의 주역이었다.



개봉 당시에는 쿠퍼와 번스타인의 일치율이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고증의 미덕은 다른 곳에 있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참여하는 안무가 제롬 로빈스, 번스타인의 작곡 스승인 애런 코플런드까지 1940~50년대 뉴욕 예술계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한 점이다. 영화 초반부의 '숨은 보석'과도 같은 이 장면에서 번스타인은 로빈스를 위해서 발레곡 <팬시 프리(Fancy Free)>를 작곡하고, 작곡 스승이자 선배였던 코플런드와 피아노 이중주로 연주한다. 실제로 '팬시 프리'는 1944년 뮤지컬 <온 더 타운(On the Town)>으로 다시 만들어졌고 1949년 진 켈리와 프랭크 시나트라 주연의 뮤지컬 영화로도 제작됐다. 영화 후반부 말러의 교향곡들이 거장이 된 번스타인을 보여 준다면, 초반부에 나오는 <온 더 타운>의 삽입곡들은 자유분방한 청년 시

절을 상징한다.

영화는 번스타인의 청년과 노년 시절을 넘나드는 편집 방식을 택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청년 시절은 흑백 화면으로, 노년은 컬러로 각각 구분했다. 실제로 번스타인의 활동 시기는 흑백에서 컬러 화면으로 넘어가는 기간과 겹친다. 관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영화적 장치이지만, 실은 또 하나의 반전 카드가 숨어 있다. 번스타인은 여배우 펠리시아(캐리 멀리간)와 결혼해서 세 아이를 기르는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했지만, 그 이면으로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초반부에 간략한 암시 정도로 언급되던 번스타인의 이중성은 후반으로 가면서 드라마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슬픈 가족극이기도 하다. 평생 남편을 감내하며 살았던 아내 펠리시아 역시 결국 폭발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다 보면 그래. 당신 진심은 그런 거야. 혼자 늙어 죽기 싫으면 조심해, 게이 영감."

성애와 속애,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이성애와 동성애는 평생 번스타인의 내면에서 충돌하고 공존했던 주제들이었다. 번스타인에 대한 이전 영상들은 동성애라는 주제를 에두르거나 간략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도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분명 진실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결말에 이르러서도 영화는 여전히 스피버그적인 화해와 스코시지적인 파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하지 못한 채 자꾸 머뭇거리고 멈춰 선다. 영화는 "예술 작품은 답을 주는 대신 질문하게 하며, 상반된 대답들 사이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자막으로 출발한다. 번스타인의 지론이었던 이 문구는 실은 번스타인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아쉬움은 극도로 모순적이었던 번스타인의 삶 자체가 만든 것이기도 했다.



말러 교향곡 전곡
레너드 번스타인(지휘), 뉴욕 필하모닉, 소니 클래식, 1960~1967(CD)

레너드 번스타인 이전에도 말러 교향곡을 연주하거나 녹음한 지휘자들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교향곡 전곡을 음반으로 녹음하는 대장정을 완주한 지휘자는 그가 처음이었다. 평생 두 차례 전곡 음반을 녹음했고, 영상까지 더하면 세 번으로 보기도 한다. 이 가운데 뉴욕 필하모닉 음악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인 1960년대 완성한 첫 번째 전곡 음반이다. 보통 성숙미나 완성도를 기준으로 후기 녹음들을 뒷길로 평가하지만, 이 음반에선 무엇보다도 번스타인의 들끓는 에너지와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뉴욕을 걸을 때 배경 음악으로도 어울린다.



오감을 충족시키는 굿즈 마케팅

편슈머에서 프루스트 효과까지

경복궁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해 조형 요소를
 선별적으로 재해석한 '경복궁 모던' 문화상품
 품목군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팝업 스토어와 전시장에서 굿즈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2차 파생 상품을 의미하는 굿즈는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 주력 상품이 아니기에 한시적이고 저렴하지만 소비자의 눈길을 끌 만한 트렌디한 아이템 위주로 기획된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굿즈 소비는 좋아하는 브랜드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일종의 발도장을 남기는 일이기도 하다.

글 서민경 디자인 칼럼니스트
 텍스트 공방 대표. 디자인과 공예 영역에 걸쳐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디자인과 큐레이팅을 전공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거쳐 월간 <디자인>에서 에디터로 일했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편슈머를 공략하라



요즘 국내 주요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가수 비비의 '밤양갱' 노래 덕분에 양갱 열풍이 일고 있다. 전국 마트와 제과점에서 판매량이 급증한 양갱을 비롯해 약과, 다식, 유과 등 전통 간식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는 최근의 현상을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트렌드', 혹은 '힙트레디션'이라고 부른다. 이는 비단 먹거리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매년 봄·가을 추진하는 '경복궁 별빛야행' 행사는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궁중 문화를 체험하면서 경복궁 야경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4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국문화재단은 2022년 경복궁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해 조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복궁 브랜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디자인을 맡은 오이뮤는 '경복궁 동물상 양초' '십장생도 족자' '경복궁 넥타이' '해치 도어스톱' '경복궁 노방 책갈피' 등을 제안했다. 이는 조선 시대 궁궐이라는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잘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숍 '뭇즈'의 공모 선정작인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 세트'는 없어서 못 팔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다. 밀려드는 주문량으로 인해 현재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정된 날짜에 선착순 예약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야말로 온라인 '오픈런'인 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 향연도'를 활용한 이 굿즈는 온도에 반응하는 시온 안료 프린팅을 적용해 잔에 차가운 술을 따르면 선비들의 얼굴이 취한 것처럼 붉게 변한다. 이처럼 재미있는 아이템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층을 '펀슈머(Fun+Consumer)'라고 하는데 여러 기업과 브랜드들도 이들의 입맛에 맞춰 독특하고 눈에 띄는 굿즈를 기획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대상 청정원 안주야와 더위터멜론이 기획한 여름 한정 굿즈 '혼술선풍기'도 펀슈머를 타깃으로 한 사례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이슈몰이를 했다. 1949년 부산에서 시작한 국내 대표 타월 브랜드 송월타올

은 지난해 부산 1세대 서브컬처 편집숍이자 브랜드 발란사와 협업해 '타올쿤'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타월 원단으로 만든 볼캡, 모자와 양말 등 의류 제품과 접시, 유리컵, 쟁반 등 주방용품을 디자인해 서울 성수동, 2023 서울리빙디자인페어, 동부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롯데몰 김포공항점, DDP '서울디자인 2023' 등에서 팝업 순회전을 선보였다.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은 2017년부터 지역 상생을 목적으로 시즌마다 지역 소도시 한 곳을 정해서 '로컬 프로젝트'



대상 청정원 안주야와 더위터멜론이 개발한 여름 한정 굿즈 '혼술선풍기' © 더위터멜론

송월타올이 서브컬처 편집숍이자 브랜드 발란사와 협업해 개발한 '타올쿤' 캐릭터 © 송월타올



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고 로컬 브랜드 제품과 에피그램이 직접 제작한 테마 제품을 선보이는 마켓을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에는 충북 보은의 특산물인 대추를 테마로 경리단길 플래그십 스토어 '올모스트홈'에서 팝업을 열기도 했다. 이때 눈길을 끌었던 것은 듀오 일러스트레이터 안초비와 함께 속리산 입구길로 유명한 '말티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보은의 캐릭터 '말티'를 탄생시킨 것이었다. 팝업스토어 '로컬마켓 보은'에서는 '말티' 캐릭터를 입은 키링, 볼펜, 컵, 수건 등 다양한 굿즈를 소개하는 한편, 대추 페이스트를 활용한 음료와 베이커리 등 시즌 메뉴를 개발했다. 이처럼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타올쿤이나 말티 같은 캐릭터 그리고 이들 캐릭터를 활용한 2차 파생 상품인 굿즈는 기존 브랜드에 신선한 감성을 주입하고 소비자와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

에피그램 팝업스토어 '로컬마켓 보은'에 등장한 캐릭터 '말티'



© 코오롱FnC



박물관 정원의 향을 담은 전시 연계 굿즈 '박물관에서의 사색'
© 온양민속박물관

장소의 기억을 보관하는 방법

철학자 한병철은 저서 『사물의 소멸』에서 '책장 넘기기에 촉감이 깃들여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촉감은 모든 관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이며, 신체적 접촉이 없이는 결속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 방문했을 때 뭔가를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만이 감각하는 전부가 아니다.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귓가에 들리는 소리, 향, 지면에 한 걸음 내딛을 때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감각을 통해 나와 공간이 관계를 맺는 셈이다. 그곳에서 구입한 굿즈는 공간에 대한 기억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다. 같은 책에서 저자는 소유보다 체험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사물을 구매할 때 그것의 사용 가치보다 미적·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미지, 해당 상품이 우리 삶에 특별한 경험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 거기에 담긴 스토리텔링이 우리의 감정을 충족시킨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구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지난해 온양민속박물관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간과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두리

반을 소재로 전통 식문화의 현대적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한 기획 전시 '곳간과 두리반'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해 향 전문 브랜드 수키노와 협업해 박물관 정원의 향을 담은 전시 연계 굿즈 'Meditation at the Museum' 박물관에서의 사색'을 한정 판매했다. 짚풀로 촘촘히 엮은 패키지는 이충경 짚풀명인의 솜씨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급자족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펴보는 전시 주제와도 잘 어우러졌다. 한편 2022년 경주 최부잣집은 재단법인 1779를 설립, '하우스오브초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경주의 향을 담은 제품 '1779'를 출시했다. 기획을 맡은 구병준 피피에스 대표는 1779년부터 이어 온 오랜 역사를 가진 최부잣집의 축적된 시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향 '1779'에 '시원한 바람 속에 읽은 시간의 향'이라는 테마를 녹였다고 설명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인 프루스트는 홍차에 마들렌을 곁들여 먹다가 불현듯 어린 시절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체험을 한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향을 맡고 과거의 기억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현상을 '프루스트 효과'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간을 시각만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맡았던 향, 먹었던 음식 등은 기억을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억을 자동 재생시키는 굿즈로서 향은 분명 좋은 선택임에 틀림없다.



경주의 향을 담은 제품 '1779'

© 피피에스, 김잔디

장애·비장애예술인의 경계를 지우다

진전하는 장애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 불어온 교양 열풍은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다. 노자, 장자, 공자 등 옛 동양 철학에 대한 붐이 일었고, 머리와 혀가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 이유로 와인 광풍도 불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한 교양은 아트로 뭉뚱그려 대표되는 시각 예술인 듯싶다. 아트에 대한 사랑은 미술사 공부부터 블록버스터 전시 관람, 갤러리 투어를 거쳐 이제 컬렉팅에 이르는 산업으로 발전 중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예가 장애예술이다. 장애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발견하기에 국내 상황이 여의찮은 탓이 크다.

글 **전중현** 디자인·건축 저널리스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RA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월간 <디자인> <SPACE 空間> <노블레스>에서 에디터로 일하며 디자인매거진 <CA>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다양한 칼럼을 썼다. 주거 건축을 다루는 <브리크> 부편집장, 편집위원을 지냈고 2021년부터 3년간 <기아 디자인 매거진> 창간과 콘텐츠를 총괄했다. 현재 디자인, 공간, 건축, 예술에 대해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며, 문화예술 매거진 <비앤티튜드> 편집장을 맡고 있다.

장애와 예술이 엮이는 네 가지 경우의 수

지난 호 글에서는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 간의 모호함을 말하면서, 장애예술인이 이끌어 가는 장애인예술이란 용어가 한국에 고착화된 상황에 대해 의문을 던진 바 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살펴보면 장애예술이 훨씬 보편적이다. 'disabled arts'라는 단어가 명확히 있을 정도니까. 반면 장애를 가진 예술가의 활약은 'disability in the arts'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를 둘러싼 예술 활동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이란 용어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필자의 개인적인 논지이므로, 비판과 의견은 환영한다.

그런데 용어를 하나로 정리한다고 복잡다단함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장애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 또박또박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지난 2013년 미국 휘트니 뮤지엄이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바꿀 때 참고했던 핵심 문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예술의 역사를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손쉬운 방법일지라도 그건 휘트니의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려면 단선적인 시선으로 회귀함을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장애와 예술이 엮이는 경우의 수를 나열해 적절한 예를 들며 조금씩 정리해 보려고 한다. 예술의 경우에는 장애예술과 비장애예술, 장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단 이렇게 나누면 총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추측할 수 있다. 비장애인의 비장애예술, 장애인의 비장애예술, 장애인의 장애예술 그리고 비장애인의 장애예술이다.

주디스 스콧의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설치 장면, 2017
© Images courtesy of Venice Biennale.
Photos by Andrea Avezzu and Italo Rondinella.



비장애예술과 장애예술의 차이

비장애인의 비장애예술은 너무나 간단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그 자체다(장애 예술이라는 레이블을 굳이 붙이지 않는다면!). 오감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예술적 감흥을 주는 예술이 모두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비장애예술과 장애인의 장애예술을 말하러니 바로 의문점이 떠오른다. ‘비장애예술과 장애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는 보편적으로 뚜렷한가?’ 약간의 애매모호함을 부정할 순 없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비장애예술과 장애예술의 명확한 차이점은 당사자성이다. 장애에서 비롯한 경험이 작품에 뚜렷이 영향을 미친다면 장애예술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장애인이 획득한 예술적 성취가 비장애인의 비장애예술과 비교해 그 결이 비슷하다면 굳이 장애예술이라는 레이블을 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와 관련된 메시지가 작품에 담기지 않았다면, 장애예술이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오판이자 오만이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고대 그리스로 올라가 보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음유 시인이었다. 그런데 그의 서사시와 시력 장애 간에 어떤 관계성이 존재하던가? 베토벤도 마찬가지다. 점점 들리지 않다가 아예 청력을 상실한 후 작곡한 교향곡 9번은 오히려 노래와 합창까지 수반한 대편성을 갖췄다. 결국 우리가 장애를 극복한 위인이라 칭하는 예술가들이 다들 여기에 속하는 셈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레이 찰스와 스티비 원더, 일본의 피아니스트 츠지이 노부유키, 이탈리아의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선천적인 시력 장애부터 14세 때 입은 낙상으로 다리의 성장이 평생 멈춰 버린 비운의 화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 환각, 망상, 행동 이상 등을 만성적으로 겪는 조현병 환자였던 반 고흐와 에드바르 뭉크, 사고로 입을 화상 때문에 왼쪽 넋째와 다섯째 손가락 기능을 상실한 후 운지법을 새롭게 고안한 재즈 기타리스트 장고 라인하르트,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오른팔을 잃어 왼팔로만 연주하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 같은 후천적인 장애까지, 이들은 모두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활동하며 고전이 된 창작물을 발표한 인물들이다.

장애인의 당사자성에 집중한 장애예술가들

우리가 주목할 사례는 장애인의 당사자성을 기반 삼아 장애예술을 시도한 작가들이다. 이때 장애는 절단, 마비 등 움직임과 기능에 영구적인 손실이 오는 신체적인 장애와 조현증부터 각종 정신 질환에 이르는 비신체적인 장애로 나뉜다. 장애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 장애와 갑작스런 사고 혹은 질환의 악화로 인한 후천적 장애도 구분해야만 한다. 상실에 대한 경험은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까닭이다.

흥미로운 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비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인물이 장애예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데 있다. 예술도 지적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지가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인물은 구사마 야요이다. 우리에게 ‘땡땡이 작가’로 잘 알려진 그는 어린 시절 세상이 점으로 모두 뒤덮이는 환영을 보고 매일 점에 잠식당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이때 구사마는 회피 대신 끝없이 피어오르는 점의 환영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자신의 의지대로 점을 활용하며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캔버스와 공간마다 반복적으로 점과 선을 표현하며 스스로 점의 통제자가 된 그는 자신의 장애를 온전히 드러내며 사람과 소통하고,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세계에 우리를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맡고 있다.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정신 수양의 목표까지 있으니, 예술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예술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미국의 섬유예술가 주디스 스콧도 무척 흥미롭다. 다운증후군을 달고 태어난 후 어

릴 때의 성형열로 청력까지 잃은 그는 당시 정신 장애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35년 동안 시설에서 살았다. 이후 40세가 넘어 쌍둥이 자매의 노력으로 바깥세상에 나온 후에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에게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한 세계 최초의 조직 중 하나인 오클랜드 CGAC를 다니기 시작했다. 2년 동안 회화며 드로잉 등 어디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섬유예술 워크숍에 갑자기 빠져든 그는 바느질하는 다른 수강생과는 달리 다양한 물건을 색실로 감싸 고치처럼 만드는 독특한 표현 기법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뉴욕 현대 미술관, 파리 퐁피두센터,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에 작품이 영구 소장됐고, 지난 2017년에는 세계 최고의 미술 행사인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회에 초청받으

미국의 휠체어 무용단 캔두코는 휠체어를 탄 무용수만이 할 수 있는 움직임과 비장애인 무용수의 몸짓이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장면을 연출한다



© Anthony Crickmay

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신체적인 장애 경험을 장애예술로 풀어내는 예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예술의 전형일 것이다. 주로 사고나 갑작스런 뇌졸중이 초래한 마비 증세가 큰 비율을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흐름은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며 원초적인 신체가 지닌 한계에 도전하는 무용이다. 신체통합무용(Physically Integrated Dance) 또는 장애포괄무용(Inclusive Dance)이라고 부르는데, 1980년 춤추는 휠체어 무용단(Dancing Wheels Company)을 창립한 미국 최초의 전문 휠체어 무용수 메리 베르디-플레처와 1991년 설립되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캔두코 무용단의 셀레스테 단데커가 대표적이다. 두 사람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용수가 함께 활동하는 현대무용단을 꾸리면서, 휠체어를 탄 무용수만이 할 수 있는 움직임과 비장애인 무용수의 몸짓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탐색하며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장면을 연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재미있는 지점은 이들이 영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장애예술 투쟁이 깊게 연관됐다는 것이다.

소수자가 사회에 조화롭게 뒤섞일 수 있도록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는 서구권에서도 첨예한 대립 끝에 얻어 낸 성과다. 미국의 경우, 1990년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이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투사처럼 행동했다. ADA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민권법이다. ADA가 통과한 덕분에 법적으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건물과 도로마다 휠체어 이동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세계에서 가장 이르게 제정된 ADA 덕분에 미국 장애예술이 한 단계 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국 또한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여파로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이하 DDA)이 생기며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불이익의 원인을 사회적 태도와 환

영국의 컨템포러리 미술가 마크 퀴인은, 두 팔은 없지만 생명을 잉태해 배가 볼록하게 나온 구족화가 엘리슨 쿠퍼의 모습을 12톤 무게의 조각상으로 완성했다



경적 장애물로 명시했다. 덕분에 장애예술은 절정에 이르렀고, 2004년 DDA를 개정할 때 장애인 평등 의무 조항이 추가되면서 장애예술이 취하는 자세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기존에는 차별에 대항해 장애예술의 온전함과 참여자의 인정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통합을 기조로 장애를 넘어 소수자가 사회에 조화롭게 뒤섞이는 형태로 발전했다. 드디어 장애인의 당사자성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도 비장애인이 주도하는 장애예술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면에서 궁극적인 지향점이 열린 셈이다. 우리가 살펴보던 마지막 카테고리의 열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남긴 작업이 바로 영국의 조각가 마크 퀴인이 발표한 <임신한 엘리슨 쿠퍼>다.

모든 예술은 사회적 연대를 위한 매개체

영국 런던 한가운데에 자리한 트래펄가 광장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전쟁 영웅들의 동상이 주르륵 서 있다. 그중 어찌다 보니 비어 버린 네 번째 기단에 공공 미술 작품을 공모하는 프로젝트는 매년 관심사다. 그 유명세에 큰 역할을 한 주인공이 2005년 첫 타자로 나선 마크 퀴이었다. 그는 구족 화가로 활동하는 엘리슨 래퍼의 임신한 나신을 3D 스캔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구에서 기념비적인 석상 제작에 사용하는 이탈리아 카라라 지역의 하얀 대리석을 구해서, 두 팔은 없지만 생명을 잉태해 배가 볼록하게 나온 쿠퍼의 모습을 12톤 무게의 조각상으로 완성했다. 공개 후 언론과 대중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작가는 트래펄가 광장에 세워진 남성 전쟁 영웅의 동상들을 과거로 상정하고, 장애인 여성의 임신한 모습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며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후 해당 작품은 2012년 런던패럴림픽 개막식에서 거대한 공기 조각으로 재구현되어 21세기 장애예술의 새로운 장을 연 기념비적인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결국 지금의 장애예술은 장애인이 당사자성을 내세우며 주체를 독점하기보다 서구 사회의 선주민, 흑인, 유색 인종, 성소수자 그리고 여성에 이르기까지, 장애가 지닌 소수성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이 전체 사회와 어떻게 통합적인 관계를 지향할 수 있는지 물음을 던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천천히 성취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성숙도와 관련이 깊다. 결국 예술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고 싶은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순간적으로 건강할 뿐이다'라는 말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곱씹어 볼 때다.

식사 도구의 역사

음식 운반 도구의 디자인

동물과 달리 사람은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다. 또 하나 동물과 식사 방법이 다른 점은 숟가락, 포크, 젓가락 같은 도구로 음식을 입으로 '운반'한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나 개의 경우엔 주둥이를 음식으로 가져가 먹는다. 사람은 왜 도구를 사용할까? 아마도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로 질긴 가죽을 찢어서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의 턱이나 이는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 것도 이가 부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음식 운반 도구를 발전시켰는지, 도구와 음식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글 김신 디자인 저널리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월간 <미술공예> 기사를 거쳐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13년에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있었다. 2014년부터 칼럼니스트로 독립해 디자인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숟가락, 보편적 식사 도구

사람이 속한 영양류만이 음식을 손으로 먹는다. 그중에서도 사람만이 식사에 도구를 사용한다. 인류도 처음에는 손으로만 음식을 먹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민족과 부족이 많다. 심지어는 유럽인들도 비교적 최근까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를 들어 16세기 영국 왕 헨리 8세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었다. 유럽에서 포크를 누구나 다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0~400년 전이다. 포크보다 숟가락이 훨씬 오래된 식사 도구다. 차이점이라면 숟가락은 액체를, 포크는 고체를 먹는 도구라는 점이다. 포크보다 숟가락의 역사가 더 길다는 것은 액체가 고체보다 손으로 먹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헨리 8세는 야채나 옥수수 따위의 곡물과 고기는 손으로 먹더라도 수프와 스투 같은 국물 요리를 먹을 때만큼은 숟가락을 사용했을 것이다.

액체로 된 음식을 마시는 일 외에도 식사 도구가 태어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식사 도구의 탄생 근거에 대해 대체로 손이 지저분해지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깨끗이 씻기만 한다면 손은 도구보다 더 위생적이다. 지저분해져도 식사 뒤 씻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더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화식^{火食}에 있다. 불에 금방 익힌 고기는 손으로 먹기 힘들었을 것이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식은 뒤에 먹어야 한다. 하지만 맛에 민감한 인류는 손으로 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때 음식이 더 맛있다는 걸 알고 있다.

처음에는 나무 꼬챙이나 뼈 따위를 임시변통해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한 임시변통의 도구들은 비정형의 모양이고 또한 써어 없어지기 때문에 인류가 정확히 언제부터, 또 어떤 모양의 식사 도구를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집트 문명을 비롯해 고대 중국, 그리스와 로마, 한국 삼국 시대의 숟가락 유물은 현존한다. 그것은 상아·청동·나무 따위로 만들었고 기다란 자루와 동그란 술날(숟가락에서 둥근 부분의 가장자리)이 결합된, 아주 단순한 형태지만 대단히 효과적이다. 숟가락은 국물 음식, 뜨거운 음식 그리고 낱알로 흩어지는 곡물 따위를 아주 쉽게 떠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힌 감자나 생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 빅토르스의 작품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니-라넬름 스프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정자의 권리를 넘기는 모습을 그렸다. Jan Victors, Eau Sealing His Birthright to Jacob for a Portage of Lentils, oil on canvas, 1653 / The Royal Lazienki Museum in Warsaw



알렉산더 매킨지의 <소박한 식사>, 19세기. 어린이가 숟가락으로 포리지 종류의 음식을 먹고 있다

선 따위를 썰어서 떼어 낼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기능성으로 가장 오래된 식사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포로나 죄수들에게 숟가락만 주는 이유도 그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숟가락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등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도구다. 숟가락은 문명권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 포크와 젓가락보다 더 근본적인 식사 도구인 셈이다. 이는 음식을 먹는 데 포크로 찌거나 젓가락으로 집는 것보다 모아서 뜨는 것이 식사의 근본이라는 걸 일깨워 준다. 인류가 화식을 시작한 뒤로 국물 요리가 주식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모아서 떠먹는 것이 왜 근본적인 식사인지 알 수 있다. 국물은 대부분 딱딱해서 먹기 힘들었다. 하지만 불을 이용하자 딱딱한 국물이 부드러워졌고, 그것을 물과 결합해 포리지^{porridge}, 즉 국물을 갈거나 으갠 뒤 물을 붓고 가열해서 걸쭉하게 죽처럼 끓인 음식이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국물은 고기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음식이므로 포리지를 먹기 위한 숟가락이야말로 농경문화의 근본적인 식사 도구인 것이다.

포크와 나이프, 위협적인 식사 도구

서양 식탁 위의 필수품인 포크는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유럽에서 포크가 처음 등장한 건 11세기 이탈리아로 16세기부터 일반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파스타의 등장이다. 스파게티 같은 국수형 파스타는 면을 돌돌 말아 쉽게 먹을 수 있는 포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스타가 곧바로 유럽 전역으로 퍼진 건 아니며 파스타를 먹지 않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포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파스타를 먹지 않는 알프스 산맥 북쪽 사람들은 포크가 '악마의 삼지창'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싫어했다. 손가락을 두고서 굳이 포크를 사용하는 것은 허세라는 편견도 있었다.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는 사탕과자용 포크가 있었지만, 포크로 과박하다는 이

자를 찌르는 행위가 천유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날이 세 개인 포크와 칼끝이 부드러운 나이프
© 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

하지만 포크가 편리하다는 것은 이탈리아 밖의 유럽에서도 곧 증명되었다. 포크는 파스타를 입으로 옮기는 데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고기를 고정하는 데도 매우 적절함을 깨달은 것이다. 포크가 보편화되기 전 유럽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나이프 두 개를 양손에 들었다. 하지만 나이프는 고기를 누르는 지점이 하나이므로 자를 때마다 고기가 흔들린다. 포크는 누르는 지점이 두 개이므로 안정적으로 고기를 붙들 수 있다. 처음에는 포크의 갈퀴가 두 개였다. 하지만 갈퀴 세 개가 고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 포크는 고기를 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찌어서 입으로 옮기는 기능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갈퀴가 더 많을수록 좋으므로 중국에는 4개로 늘어났다. 포크를 사용하기 전에는 나이프가 고기를 자르고 운반하는 두 가지 기능을 했다. 그러려면 끝이 뾰족해야 하는데 그것은 위협적이다. 운반 기능을 포크가 전담하자 나이프는 자르기만 하면 되므로 그 끝이 부드럽게 변했다. 이는 식사 자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해 주었다. 그만큼 나이프를 사용하는 서양의 식탁에서는 위협이 상존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젓가락, 부드럽고 우아한 식사 도구

고기를 먹는 서양의 음식 문화는 포크와 나이프를 낳았다. 반면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음식 문화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을 촉진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밥은 숟가락으로,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었다. 그러나 당나라 시대부터 점차



18세기 독일의 스푼
© Cleveland Museum of Art

밥 역시도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했다. 밥이 점성이 좋아져서 젓가락으로도 집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인들에게 숟가락은 점차 국물을 떠먹는 용도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쌀과 밀로 만든 국수가 발달하면서 젓가락은 마침내 숟가락을 밀어내고 동아시아 식탁의 주도적인 식사 도구로 자리 잡았다.

포크와 나이프의 문화는 음식을 자르고 찌르는 행위를 강요한다. 반면에 숟가락과 젓가락의 문화는 음식을 결코 베거나 찌르지 않는다.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는 문화권의 식탁에는 고기를 비롯해 모든 음식이 잘게 잘려서 나온다. 잘게 썰어 만든 음식을 젓가락으로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입으로 운반하는 모습은 서양인에게 대단히 우아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는 일본 여행 경험을 담은 책 『기호의 제국』에서 포크와 나이프의 문화를 폭력적이고 약탈적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한다. “젓가락은 음식물을 나누기 위해 서양의 도구처럼 자르거나 찌르는 대신 분리하고 헤쳐 놓거나 흘트린다. 젓가락은 음식물에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중략) 이런 점에서 젓가락은 나이프보다는 숟가락의 원시적인 기능에 더 가깝다.” 원시인이 숟가락을 사용해 음식을 먹을 때보다 유럽인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 먹을 때가 더욱 폭력적이라는 의미다.

짚을 이루는 수저

젓가락을 쓰는 문화권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있다. 한국만이 금속 젓가락을 쓰고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주로 나무젓가락을 쓴다. 한국만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쓰라는 유교의 예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유교 경전에 따르면 밥은 반드시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예의라고 가르친다. 중국으로부터 유교를 전수받은 한국은 중국보다 더 근본적인 유교 국가여서 그 법도를 최근까지 지켰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아주 오래전에 그 법도를 버렸다. 명나라를 방문한 조선 선비들은 중국인들이 밥을 먹을 때에도 젓가락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밥그릇을 입 근처로 가져가 먹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선비는 절대로 밥그릇을 드는 법이 없으며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도 상스러운 행위로 여겼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밥그릇을 들어 얼굴 근처로 가져가는 자신들의 식습관과는 달리, 조선인들이 얼굴을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가져가 먹는 모습을 보고 마치 개처럼 먹는다고 폄하했다.

명나라 시대 도자 숟가락. 자루가 짧고 술날과 비스듬한 각도로 결합되어 있다





『단원풍속도첩』 중 세화, 18세기, 세화를 먹는 남자와 그릇을 버려야 하는 고구 손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시대 청동 수저. 손가락의 자루가 매우 울퉁퉁하다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에서는 이처럼 손가락과 젓가락은 각자의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짝을 이루어 밥상에 올라간다. 그 결과 손가락과 젓가락의 디자인은 통일되어야 한다. 반면에 주로 젓가락을 사용하고 국물 요리를 먹을 때에만 손가락을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손가락과 젓가락의 디자인이 분리 발전했다. 중국 손가락은 그야말로 오직 국물용이므로 깊이 파여서 더 많은 액체를 담을 수 있다. 또 술날과 자루가 국자처럼 꺾여서 만나므로 용기 속 국물을 뜨기 더 쉽다. 한국 손가락은 밥과 국물 두 가지를 담으려다 보니 절충형으로 디자인되었고 국물을 떠먹기에는 그 깊이가 좀 얇다. 또 술날과 자루가 수평으로 만나기에 그릇이 깊고 국물이 적으면 뜨기가 불편하다. 왜 이런 불편이 개선되지 않을까? 젓가락이 손가락의 디자인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즉 '수저'라는 짝의 문화가 수저의 디자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밥상에 같이 놓일 일이 없는 중국의 손가락과 젓가락은 각자의 기능에 맞게 진화했다. 그러다 보니 재료도 다르다. 젓가락은 나무고 손가락은 도자기다. 요즘 중국의 손가락은 플라스틱이 많다. 반면에 연인처럼 밥상에 반드시 짝을 이뤄 놓이는 한국의 손가락과 젓가락은 그 모양이 이질적이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재료도 똑같아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 젓가락만 금속인 이유는 역시 금속인 손가락과 짝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놋쇠(유기)였고 요즘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중국과 서양 손가락의 손잡이는 기능적이다. 중국 손가락은 손잡이가 짧고 국자와 비슷한 각도로 디자인되어서 실용적이다. 서양 손가락은 잡기 쉽게 손잡이가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술날과 자루가 만나는 지점이 울퉁퉁하다. 반면에 한국 손가락의 손잡이는 뾰뾰하게 길기만 하다. 이는 기능적으로 디자인된 것이라기보다 기다란 젓가락과 통일되어야 한다는 형식적이고 미적인 요구를 따른 것이다. 포크가 생기자 나이프의 날카로운 끝이 부드럽게 변했다는 것은 포크와 나이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했음을 보여 준다. 한국의 손가락과 젓가락도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디자인된 것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문명권의 음식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류는 포크와 나이프와 젓가락을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유럽인들이 젓가락을 어색하게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동양인만큼 잘 다룬다. 인도처럼 손으로만 음식을 먹는 문화권에서도 점점 더 도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에게 음식 운반 도구란 필연적인 것이다. 음식을 손으로만 먹으면 그 다양성이 풍부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트리움
클래식
시리즈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SEONGNAM CLASSIC SERIES AT ROUN

- 5.11. SAT. 5PM**
<콘서트 발레 : 백조의 호수>
서울발레시어터 X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5.24. FRI. 7:30PM**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6.26. WED. 7:30PM**
작곡가 시리즈 : 베토벤 I
- 7.27. SAT. 5PM**
작곡가 시리즈 : 베토벤 II
- 8.28. WED. 7:30PM**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김다미 X 송영훈 X 양성원
- 9.7. SAT. 5PM**
클라라 주미강
바이올린 리사이틀
- 11.23. SAT. 5PM**
<콘서트 오페라 : 코지 판 투테>

2024. 5. 11. - 11. 23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4+5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SMART NEWS
성남문화재단, ESG 경영 선포식 개최 外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SEONGNAM+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April·May 2024

Calendar + Map +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2024년 04 + 05월

다채로운 음악 콘서트와 전시회부터 흥미진진한 뮤지컬과 연극까지,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4.5

⓪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 김세은&이상연 듀오 리사이틀(19:30)	2 ⓐ 성남시립교향악단 <성남뮤직페스티벌>(19:30)	3	4 Ⓣ 캐치니핑 전국 투어 콘서트(11:00, 14:00, 16:30) Ⓛ 이지연 재즈 오케스트라의 지브리 VS 마블 OST 재즈 콘서트(15:00, 19:00) Ⓜ 가족뮤지컬 <우리 엄마 최고!>(11:00, 14:00, 16:00) ⓐ 뮤지컬 <엄마까투리는 슈퍼맘>(11:00, 14:00, 16:30)	5 Ⓣ 캐치니핑 전국 투어 콘서트(11:00, 14:00, 16:30) Ⓛ 2024 어린이 음악회(14:00) Ⓜ 가족뮤지컬 <우리 엄마 최고!>(11:00, 14:00) ⓐ 뮤지컬 <엄마까투리는 슈퍼맘>(11:00, 14:00, 16:30)
6	7	8 ■Ⓜ 성남미디어센터 상영회 <굿 윌 헌팅>(14:00)	9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19:30)	10 ■Ⓛ 연극만원 <슈만>(19:30) Ⓛ 매튜 뒤포어 플루트 독주회(19:30)	11 ■Ⓛ 패밀리 시리즈<슈퍼클로젯>(11:00, 14:00) Ⓣ 분당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7:00) ■Ⓛ 연극만원<슈만>(14:00,18:00) ■ⓐ <콘서트 발레: 백조의 호수>(17:00)	12 ■Ⓛ 패밀리 시리즈<슈퍼클로젯>(11:00, 14:00) Ⓣ 아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00) ■Ⓛ 연극만원<슈만>(14:00,18:00)
13	14	15	16 ■Ⓛ 마티네 콘서트-5월(11:00)	17 ■Ⓛ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11:00)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호랑이의 꽃길>(19:30)	18 ■Ⓛ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14:00)	19 ■Ⓛ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14:00)
20	21 Ⓣ 성남문화예술제-무용제(19:30)	22 Ⓣ 성남문화예술제-무용제(19:30) ⓐ 이진용 트롬본 독주회(19:00) ■Ⓜ 성남미디어센터 상영회 <투모로우>(14:00)	23 Ⓣ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19:30)	24 ■Ⓛ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19:30)	25 Ⓣ 성남문화예술제-음악제(19:30) Ⓣ 성남문화예술제-연극제(16:00) ⓐ E.Ruem 오케스트라 연주회(17:00)	26 Ⓣ 2024 청소년 유망주를 위한 협연 음악회
27	28 Ⓣ 위더스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29 Ⓣ 한음 브라스 콰텟 창단 연주회(19:30) ■Ⓜ 성남미디어센터 상영회 <불편한 진실>(14:00)	30 Ⓣ 성남시립교향악단 오페라 이야기(19:30) Ⓣ 4인4중 교수 음악회(19:30) ⓐ 세인트폴아메리칸스콜라스 스프링 콘서트 (14:00)	31 Ⓣ 명곡 해설이 있는 보스톤트리오 콘서트 (19:30)		

위 일정은 4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4월 19일 - 6월 9일	기획전시실
■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2월 16일 - 12월 22일	상설전시실
■ 2024 성남작가조명전 2 <조창환: 숨, 묵묵한>	4월 26일 - 6월 16일	반달갤러리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2024 그림읽기 회원전-봄날의 설렘	4월 11일~4월 21일	
제26회 순후전	4월 23일~5월 2일	제4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한국수채화페스티벌전	5월 4일~5월 11일	제4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1) 성남미디어센터
2) 미디어홀
3) 약기랑
4) 카페 브람스
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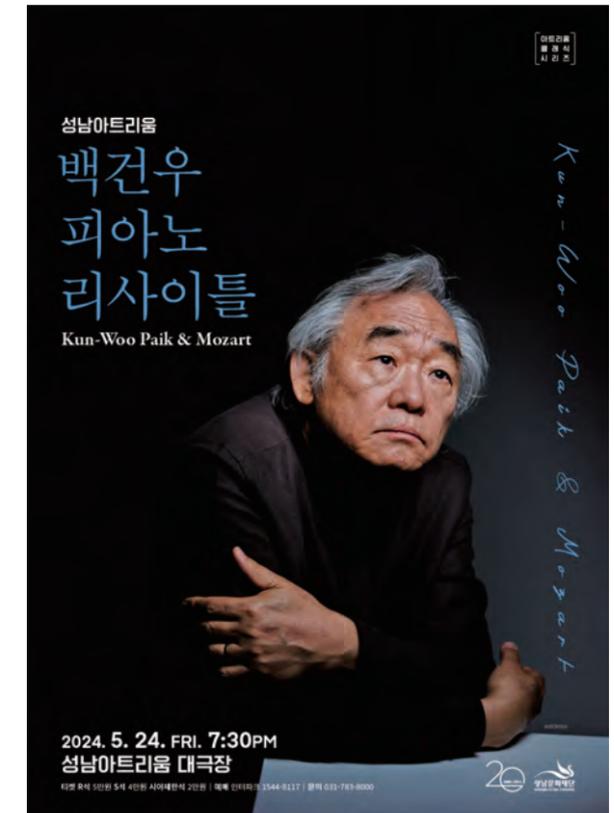
8 종합안내소

I Plaza
☎ 031-783-8000

9 춤의 광장

P 주차장

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2) 콘서트홀 주차장
3) 야외주차장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모차르트 음반 발매와 맞추어 새 음반 수록곡인 모차르트만으로 꾸민 리사이틀을 펼친다. <환상곡, K397> <론도, K485> <피아노 소나타 2번, K280> <안단테, K616> <아다지오, K540> <지그, K574> <환상곡, K396> <전주곡과 푸가, K394> 등 백건우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배열한 모차르트를 들을 수 있다.

장소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 5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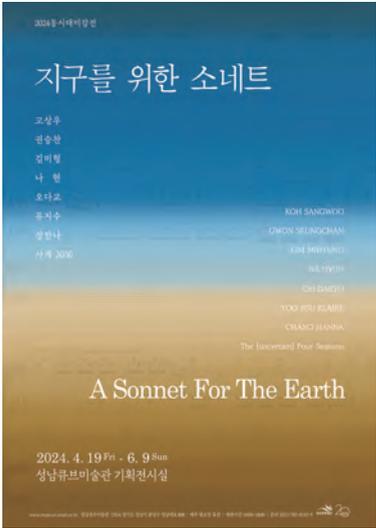
티켓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문의 | 031-783-8000

Q	Monthly Guide
	<p>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p> <p>4월 18일 '프라하의 모차르트'에서는 정예지가 지휘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한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이 프라하와 각별한 인연을 지녔던 모차르트의 작품을 소개한다. 5월 16일에는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과 바이올리니스트 만프레도 크레머가 '바로크를 빛낸 보헤미아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p>

Q	Monthly Guide
	<p>연극만원 <컬렉티드 스토리즈> <슈만></p> <p>평단과 대중에게서 인정받은 연극을 단돈 1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滿員 시리즈. 올해에는 <행복을 찾아서>(3월 8~10일), <컬렉티드 스토리즈>(4월 19~21일), <슈만Schumann>(5월 10~12일), <웃음의 대학>(7월 5~7일), <별이네 헤어살롱>(8월 30일~9월 1일)까지 5편의 연극을 소개한다.</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4월 18일(목)/5월 16일(목) 오전 11시</p>	<p>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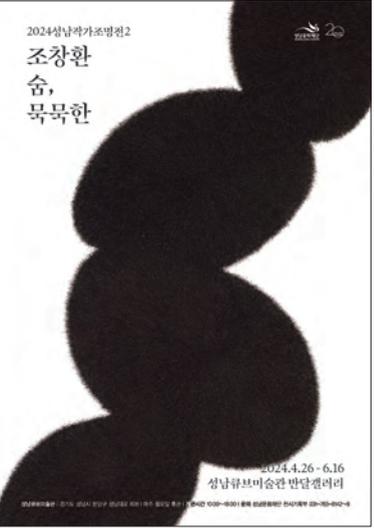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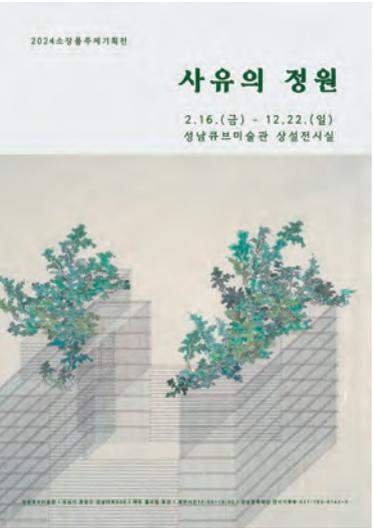
<p>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4월 19일(금)~4월 21일(일), 5월 10일(금)~12일(일) 오후 7시 30분(금), 오후 2시·6시(주말)</p>	<p>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p>
---	--

	<p>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p> <p>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현대미술로 풀어내는 성남큐브미술관의 기획전시 동시대미감전.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나는 자연과 생태, 사회의 면면을 동시대 미술의 시선에서 조망한다. 작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후·환경 문제를 전하는 작가 외에도, 작업 과정에서 화학 연료 기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이며 기후위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한다.</p>
---	---

	<p>콘서트 발레 <백조의 호수></p> <p>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한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 서울발레시어터와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발레 <백조의 호수>는 장르와 작품의 형식과 수준은 유지하되 전막 대신 하이라이트 구성으로 간소화해 초심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꾸민다. 지휘자 박승유와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발레시어터 최진수 단장의 연출로 작품의 주옥같은 명장면을 만나 볼 수 있다.</p>
---	--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4월 19일(금)~6월 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	---

<p>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5월 11일(토) 오후 5시</p>	<p>티켓 R석 35,000원, S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p>
---	--

	<p>🔍 Monthly Guide</p>		<p>🔍 Monthly Guide</p>	
	 <p>뮤지컬 <슈퍼클로젯>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소녀 나라 앞에 갑자기 하늘에서 쿵! 하고 옷장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우주 대스타 '슈퍼클로'가 나타난다. 재미가 연료라는 슈퍼클로와 함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옷장 속 재미 가득한 세상으로 떠나는 나라의 모험! 환상적인 무대 연출과 라이브 음악, 뮤지컬 전문 배우들의 신나는 연기와 군무가 어우러진 가족 뮤지컬의 유쾌함을 만나 보자.</p>		 <p>2024 성남작가조명전 2 <조창환: 숨, 묵묵한>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을 응원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이 올해 두 번째 전시로 조창환 작가의 <숨, 묵묵한>을 선보인다. 들고 나는 숨결이 생명체를 형성하듯 물감을 한 가닥씩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숨'을 표현하는 작가의 대표작 <BREATH> 시리즈를 비롯, 3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p>	<p>티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4월 26일(금)~6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p>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EBS 방영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의 캐릭터와 함께하는 키즈 클래식 공연. 유아 전문 진행자인 도레미 탐험대장과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친구들이 함께 떠난 사파리 여행, '앵무새의 합창 대회'라는 테마 아래 소프라노와 베이스 등 성부와 음계 이름을 현악 4중주 연주와 재미있는 설명으로 듣고 배워 본다. 공연 관람(50분) 후 콘서트홀 로비에서 진행되는 악기 체험(20분)도 놓치지 말 것!</p>		 <p>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한 주제 기획전. 동시대 작가 8인(박상미, 고혜숙, 윤길영, 유한이, 유봉상, 조창환, 이계진, 황현숙)의 작품 12여 점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사유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p>	
<p>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5월 17일(금)~19일(일) 오전 11시(금), 오후 2시(토·일)</p>	<p>문의 031-783-8000</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2월 16일(금)~12월 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성남문화재단, ESG 경영 선포식 개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이 4월 22일(월)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 실천에 나선다.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방침이다. 성남문화재단은 ESG 경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체제 구축 ▲문화예술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상생·공생의 사회적 가치 구현 ▲지역사회의 참여와 시민 신뢰에 기반한 혁신 경영 실천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에 나선다. 이날 선포식에는 신장진 성남시장 겸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성남문화재단 전체 임직원과 성남문화재단 이사회·후원회·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성

남페스티벌 플라마켓 대표·지역 복지단체 대표 등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 ESG 공동선언을 통해 동반성장과 협력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재단의 선포식이 형식적인 선언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도록, ESG 경영 선포와 동시에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그 첫 사례로 지난 2023년 성남페스티벌 플라마켓 운영자들이 기부한 수익금 300만 원과 재단 임직원 모금액 250만 원을 더한 기부금 총 550만 원을 선포식 현장에서 지역 복지단체 5개소에 각 110만 원씩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의 의미를 나누게 된다. 성남문화재단은 ESG 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 경영을 통해, 시민이 만드는 ESG 도시 성남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보헤미아의 소묘 과 드림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 2024년 3월~12월(총10회) ● 매일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4월 18일 (목) 11시
● 프라하의 모차르트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정예지, 클라리넷 조인혁

모차르트, <돈 조반니> 서곡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모차르트, 교향곡 38번 D장조 '프라하'

5월 16일 (목) 11시
● 바로크를 빛낸 보헤미아 음악가들 ●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 바이올린 만프레도 크레머

비버, 제대와 식탁을 위한 소나타 5번(6성부)
비버,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비버, 10성부 '바탈리아(전투)'
리틀러, 하르모니아 로마나
젤렌카, 여덟 개의 콘체르탄테 악기를 위한 신피니아 G장조 ZWV 186
라이헨나우어, 관현악 모음곡 1번 B플랫장조

성남미디어센터, 5월 무료 정기 상영회 진행



성남미디어센터가 기획해 선보이는 무료 정기 상영회가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큐브 플라자 미디어홀에서 진행된다. 5월 8일 <굿 윌 헌팅>, 5월 22일 <투모로우>, 5월 29일 <불편한 진실>까지 세 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를 다룬 <투모로우>와 <불편한 진실>은 역시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한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지구구를 위한 소네트>와 연계, 전시 관람 후 영화 감상을 진행한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환경 운동가인 앨 고어의 환경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담은 <불편한 진실>은 일찍이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깨닫고 1,000번이 넘는

슬라이드쇼 순회강연을 통해 실상을 알려 온 고어의 강연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2007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전미비평가협회상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기상 이변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투모로우>는 기후위기의 위험성이 점차 심화되는 지금, 일찌감치 미래를 예견한 혜안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오늘날 세계에 공통적으로 닥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관객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영화적 재미 이상의 의미 있는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이다.

문의 |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www.snmedia.or.kr

내 손 안에, 우리 곁에 성남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재단이 운영하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정보와 성남아트센터 공연·전시 소식, 격월간 <아트뷰>의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ART +



In my hand, by our side



MENU



유튜브
www.youtube.com/user/snartcente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ngnam_artscente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art



네이버 블로그
www.blog.naver.com/snartc



카카오톡 채널
pf.kakao.com/_rdAfxl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SNS 채널로 연결됩니다.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사업 공모



성남미디어센터가 시민 스스로 창의적인 미디어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남시민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까지 초급 중심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올해 시민 스스로 미디어 기획부터 제작과 유통까지 진행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전시 및 상영, 성과 공유까지 단계별로 연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슛폼 크리에이터,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 제작, 화면해설 작가과정 등 총 15개 워크숍 과정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다. 특히 미디어아트나 생성형 AI 등 뉴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강좌들은 지역 내 유사 프로그램이 없는 만큼, 성남미디어센터만의 특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제작지원 공모 사업도 진행한다. 도 예

산 3300만 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성남시나 경기도 등 로컬(지역) 또는 미디어·문화예술·사회/환경 등 폭넓은 주제로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외에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영화 부문도 별도 선발한다. 오는 4월 19일(금)까지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 등을 온라인 접수하며 1차 서류 심사·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명(팀)을 선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영화 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 멘토링과 상영회를 통해 모니터링 및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는 "이번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은 단순한 미디어 기술 교육이 아니라, 지역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부터 향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디어 커뮤니티 활동 등 4차 산업도시 위상에 맞는 시민 크리에이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문의 |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www.snmedia.or.kr



www.instagram.com/seongnam_arts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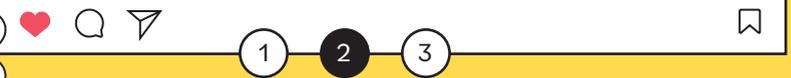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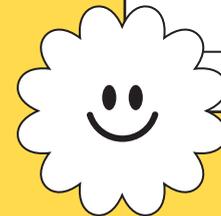
20주년을 기억해

#성남문화재단창립20주년
#20주년이니까 #20일마다 #퀴즈맞히면 #선물이팡팡

매달 20일엔
성남아트센터 인스타그램으로 Go Go!

성남문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특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정보부터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TMI까지!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어지는 릴레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고 풍성한 선물도 받아 가세요.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인스타그램 릴레이 퀴즈 이벤트

- 이벤트 채널** 성남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seongnam_artscenter)
- 참여 기간** 2024년 4~12월 매달 20~23일(당첨 발표는 매달 25일)
- 당첨 방법**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랜덤 선정
- 이벤트 경품** 성남아트센터 기획공연·전시 초대권, 성남아트센터 입점 레스토랑 <피글릿> 식사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매달 경품 품목 및 수량 상이)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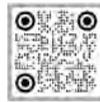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김길복/이상숙 김동술/민인선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김명자/이승오 김문기/김인숙 김연태/이주숙 김영수/원종순	산후조리원 라크렐 대표 (주)금화 대표이사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승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정승립/한정복 정용석/이승걸 정은경/박민걸 / 명당한의원 한의사 前 국립서울병의원장 / 서양화가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미술단체 <線과色> 前 명예회장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재단 이사장 패션그룹형지 회장 (주)삼화 F&F 회장 (주)기림산업 대표이사 회장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주)케이씨피 대표	
단천회원 강영귀/김연경 김진명/심정자 서창우/석남연	이노엘 대표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언우보험대리점 대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주)신성이엔지 회장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김중현/정승희 김진환/이화용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최병오/박종길 한병무/최정자 허용무/구은희 허허 참/홍애자 황광석/조영순	
손경호/이동순 손일선/김상일 안봉혁/어운경 이완근/홍은희 이재환/한정의 정대혁/김대원	/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아람휴비스(주) CEO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박미경/강대식	이매회원 김선애 박영일	(재)사랑정원 이사장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화가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정호문화재단 대표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칠죽회원 김부경/김모민 김상환/오다영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아람휴비스(주) CEO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배지영/윤영민	백종훈/지용애	김성민 목영애 박미영	운중농원갈비 대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박동순/강송희 변봉덕/이매연 우문식/조남숙 이상우/강지선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아람휴비스(주) CEO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서정림 손의명/손외자 최송 자/탁순희 신동화 신상진 오종영/이승희 유성희/유성은	윤영상/박인영 이연옥/조상수	백선정 오미주 우주호 이윤이 정휘재 조현우 최진욱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성악가 (재)한솔교육 대표이사 HCS 대표 지휘자 변호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단천문화포럼 100인회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아람휴비스(주) CEO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경화/이정우 최이성무/김복기	이은화/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최이종덕/김영주	김성민 목영애 박미영	
개인회원		이은화/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최이종덕/김영주	이지은/김순건 이호순/김명순	김성민 목영애 박미영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육션 이사	이은화/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최이종덕/김영주	임상규/정효정 임현주/김윤선 장세영/김준식	신선희	
단천회원 박 철/하정진 여영동/이육자 최희계순/김순자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前 (주)씨너스 회장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이은화/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최이종덕/김영주	임상규/정효정 임현주/김윤선 장세영/김준식	신선희	
칠죽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이은화/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최이종덕/김영주	장형환/임경희 전명자/김정길	신선희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화/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최이종덕/김영주	장형환/임경희 전명자/김정길	신선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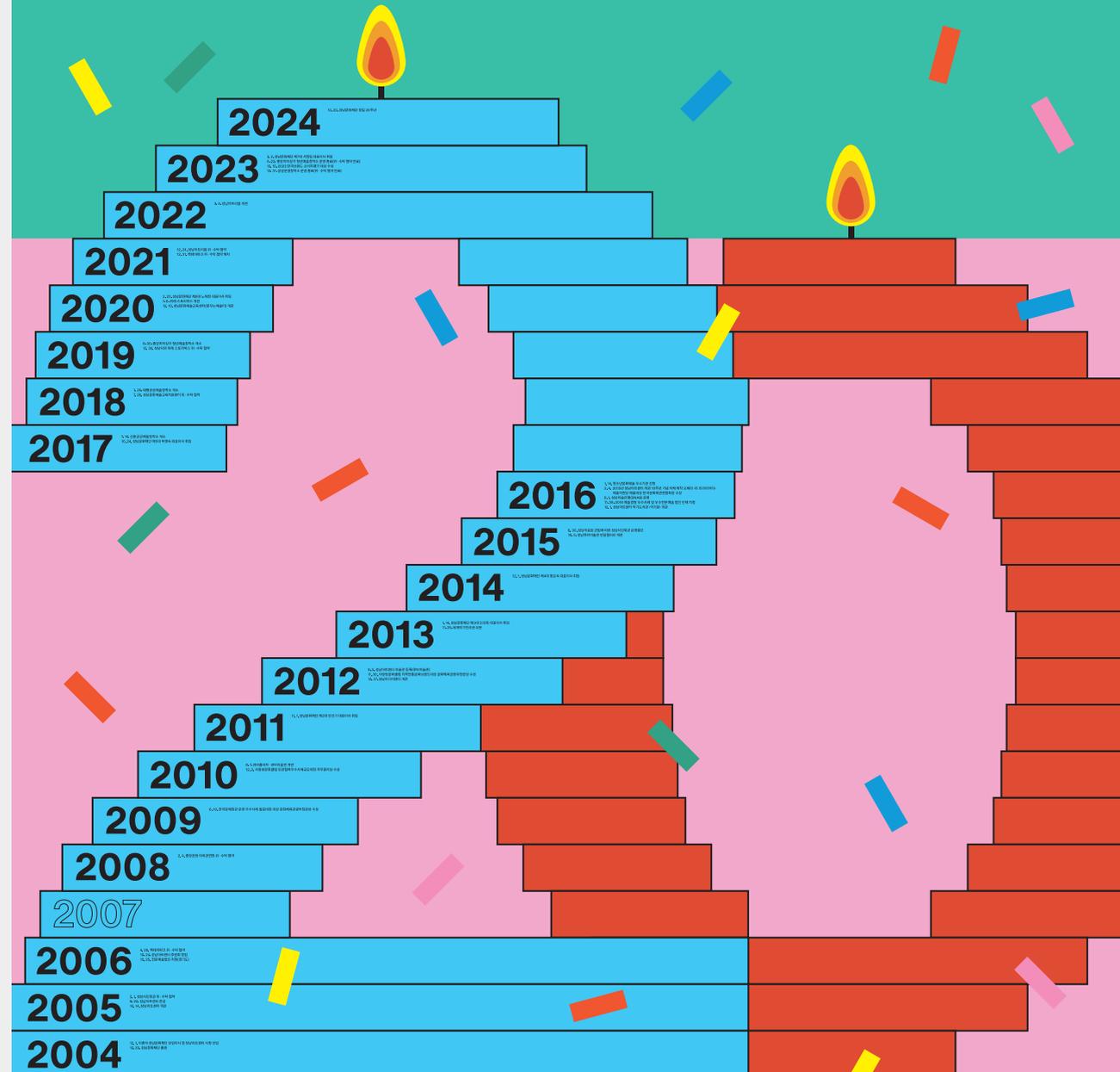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2004-2024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

스무살

예술이·다·너!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808,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3514
2004-2024 ©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